

부평역사박물관 3월중 개관

부평 역사 문화 유산 생생함 그대로

구민의 염원을 모아 추진했던 '부평역사박물관'이 2007년 3월 중반에 개관한다.

부평역사박물관(관장: 이범호)은 현재의 부평·서구·계양구·부천시 일대를 포함하는 전통시대의 부평문화권을 복원하고, 근대 이후 부평지역의 역사·문화적인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과거에 드넓은 부평평야를 바탕으로 형성됐던 농경문화의 중심지로서의 부평을 재조명하게 돼 더욱 뜻 깊다고 할 수 있다.

관람객의 눈높이에 맞췄다

부평역사박물관은 전시내용과 연출에 있어서 교육적 성격을 강조했다. 그래서 관람객이 전시주제와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작동디오라마와 애니메이션 연출 그리고 스카시모형 등 다양한 전시기법과 영상매체를 이용했다.



197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평의 변화된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1. 부평역사실 I

부평역사 I 실은 선사시대부터 1970년대까지 부평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한 눈에 보여준다. 부평역사 I 실은 전통시대 부평문화권의 역사와 문화를 복원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입구에는 조선 후기 고지도를 바탕으로 경기도 지역의 지도를 바닥연출 하였으며, 특히 전통시대 부평지역은 미니어처 연출을 통해 과거 부평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한 눈에 보도록 전시하였다. 그리고 근대 이후 부평지역의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목적으로 주안염전, 부평수리조합, 조병창, 부평의 자동차공장, 미군부대 주둔 등에 대한 관련 유물자료의 전시와 연출을 통해 근대시기 부평의 격동적인 변화상을 재조명하였다.

2. 부평역사실 II

197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평의 변화된 모습을 담는다. 부평지역의 행정,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친환경적 도시로서의 부평의 최근 모습과 '부평 비전 21 마스터플랜' 등 역동적인 부평의 미래상을 보여준다.

3. 농경문화실

과거 부평지역은 다른 인천지역과 달리 부평평야를 바탕으로 한 농경문화권의 중심지였다. 이에 전통시대 농경민들의 삶과 문화를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하였다.

입구에 들어서면 파종부터 수확까지 사계절에 걸친 농사과정을 축소디오라마로 연출하였으며, 농경에 사용된 사계절별 농기구와 전통시대의 생활사 관련 유물 등을 스카시와 함께 연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전시내용 이해의 편의성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사계절별 세시풍속과 민속놀이에 대한 영상전시와 전통시대 농가월경가를 애니메이션으로 연출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오락적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제공하였다.

4. 기획전시실

각종 기획전시 개최 및 대관을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개관 특별기획전은 '1900~1970년대 부평지역 사진전'으로 계획되었으며, 그동안 지역조사를 통

해 모든 200여 점의 사진이 다양한 전시연출을 통해 전시되며, 전시에 사용된 관련 사진은 사진도록으로 제작될 계획이다.

5. 야외전시장

야외에는 19세기 경기도 지역 전통농가인 초가를 그대로 복원해 옛 선조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단순히 옛 초가에 대한 복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별로 전시유물을 재배치할 계획이며 세시풍속 및 민속놀이 등을 통해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구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 운영

부평역사박물관은 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있어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시킴으로써 '구민과 함께 하는 박물관'을 표방하

였다. 실제로 구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활발한 유물기증과 기탁 행사를 마련해 왔으며, 전시와 운영계획에 있어서 계속적인 구민의 모니터링을 참조하였다.

또한 박물관 관람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기 위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문화공연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사회교육프로그램과 가족 단위의 다양한 문화행사 및 공연 등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문화관광팀 고병석 팀장은 "구민과 함께 하는 부평역사박물관은 단순한 전시관 역할에 머물지 않고 지역문화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경선 기자)
sunny0822@hanmail.net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부평역사박물관에서는 "구민이 만드는 박물관"이라는 열린 박물관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박물관 관리 및 운영에 관심이 있는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07. 1. 29(월)~2. 9(금)
- 대상
 - 인천·부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박물관 관리·운영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
 - 박물관 관련 자격증 및 자원봉사 경력자 우대
- 모집분야
 - 전시실(실내·야외) 설명안내 및 안내데스크 관리
 - 시설 환경미화
 - 교육프로그램 운영보조
 - 기타운영보조(시설안내, 장애인도우미)
- 활동조건: 화요일 - 일요일 중 1일 이상
- 모집인원: 〇〇명
- 문 의: 부평역사박물관 행정실(032-515-6471)
- ※ 자세한 내용은 추후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



지난 1월19일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2014 아시안게임 유치를 기원하는 '2007 신년 시민음악회'가 열렸다. 인천시와 부평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음악회는 삼산월드체육관을 가득 메운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되었다.

1부는 SBS 리포터 김준아씨의 사회로 시립교향악단의 연주회와 소프라노 이정애, 테너 김남두의 협연에 이어 시립예술단의 합동공연 "메구소리" 공연이 펼쳐졌다. 특히 메구소리 공연은 오케스트라, 합창, 바라춤, 반고춤, 풍물이 함께 어우러진 이색적인 공연으로 관객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2부는 SBS SS501의 영스트리트 라디오 공개방송이 "2007 스타팅(Starting)콘서트"라는 부제로 진행되었다. SS501, 브라이언, 바비킴, 베를, 슈퍼스타,허니 패밀리, 애즈원, 마야, 배설기 등의 가수들이 출연해 삼산월드체육관을 환호와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다.

2007년도 區예산 2천406억 확정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계속사업 마무리 중점 편성

2007년도 부평구의 살림규모는 2406억 4366만원이다. 이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13.6%가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14.6% 증가한 2344억 4948만원, 특별회계는 12.9% 감소한 61억 9418만원이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7.4%인 643억 2624만원, 사회개발비가 67.2%인 1574억 5754만원, 경제개발비가 3.7%인 86억 7859만원, 민방위비가 0.1%인 1억 8526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6%인 38억 184만원이다.

2007년도 예산편성의 주요 내용은 소의계중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기초생활보장급여 370억5858만원, 경로연금 23억3578만원, 보육수당 및 아동급식 251억3741만원, 교통수당 58억5686만원, 자활사업 36억6840만원 편성하였다.

주민의 휴식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환

경개선분야에 공원조성사업(십정녹지 및 마장근린공원조성) 40억원, 원적산·호봉산 문화산책로 조성사업 2억원, 십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9억원을 편성하였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기반 조성 및 시설 확충 분야에 부개2동 새말길 도로개설 5억원, 청천1동 산13-1~102번지 간 도로개설 5억원, 부적합 가로등정비사업에 1억5천만원을 각각 투자키로 했다.

문화 공간 및 체육시설 확충 분야에 부평풍물대축제 6억원, 청소년 수련관 건립비 41억원, 구립어린이집 신축비 15억 40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했다.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로 12억1646만원, 관내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비 지원 등 1억6700만원, 관내 기업체의 해외규격인증 및

ISO9000 인증획득 등 기술력확충분야 지원사업에 1억400만원을, 부개1동 청사 신축비 18억7300만원, 부평2동 경로당 건립을 위하여 3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한편,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23억 중 2006년도 사업비 27억원과 2007년도 사업비 41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한다.

또한, 부평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집대성하고 구의 발전과 번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부평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 위하여 2007년도에 2억1297만원을 편성하여 '부평사' 발간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생활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비 분야를 비롯해 지역간 균형발전 기반 마련,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 등에 주안점을 두었다.

(자료제공=기획감사실)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 제도개선

『용기종량제 문전수거』시행

2007년 4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방식이 가구별 전용수거용기를 이용한 『용기종량제 문전수거』로 바뀌게 됩니다.

1. 시행시기

- 전면시행: 2007년 4월 1일

2. 시행방법

- 수거방식 개선: 중간수거용기 거점수거 → 가구별용기 문전수거
- 종량제 도입: 월정액 고지서 부과 → 배출량별 납부필증 부착
- 수집·운반대행로 변경: 세대당 단가 → 수거량(배출량) 단가

3. 시행대상 및 기준

- 일반 단독주택
 - 3리터, 5리터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가구별 문전배출
- 공동주택
 - 120리터 중간수거용기에 의한 주거단위 공동배출
- 영세 식품사업장 (33㎡ 이하 영세음식점 등)
 - 10리터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업소별 문전 배출

4. 배출·수거시간 및 장소

구분	배출요일 및 시간	수거요일 및 시간	비고
단독주택	일·화·목·토(8시~12시)	월·수·금(새벽 0시~6시)	다세대·연립·소규모음식점 포함
공동주택	상시배출	화·목·토(새벽 6시~12시)	100세대 이상

● 배출장소

- 단독주택 및 영세식품사업장: 가구(업소)별 1층 주 출입구 앞
- 다세대: 연립 등: 호수별 1층 주 현관 앞

5. 용기보급

● 용기보급 기준

구분	단독주택		영세식품사업장	공동배출자
	2인 이하	3인 이상		
용량	3ℓ	5ℓ	10ℓ	120ℓ

- 처음 시행시만 무상지급하고 분실 등 추가 소요시 유상구입
- 경조사, 갑작철 등 일시적 다량배출시 20ℓ 전용봉투 사용
- 용기구입처: 관내 대형할인매장 및 종량제봉투 판매소

6.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

- 가격(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과 동일)

구분	3ℓ	5ℓ	10ℓ	120ℓ	20ℓ (전용봉투)
가격	100원	160원	310원	3,600원	620원

- 구입처: 종량제봉투 판매소

7. 배출흐름도



청소와 음식물자원화팀 (☎509-6620~25)

동 현안사항 및 여론청취를 위한

2007년 동사무소 연두순시 계획

2007년 새해를 맞이하여 동사무소를 방문,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주민과의 격의 없는 대화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아래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순시기간: 2007. 2. 22(목)~3. 13(화)

2. 주요내용: ▲ 동 현안사항 및 주민여론 청취 ▲ 여론 및 건의 사항 수렴 ▲ 지역현안사항에 대한 격의 없는 대화

3. 2007년 동 연두 순시 일정표

방문일	오전 10:00	오후 14:00
2. 22(목)	부평1동	부평2동
2. 23(금)	부평3동	부평4동
2. 26(월)	부평5동	부평6동
2. 27(화)	산곡1동	산곡2동
3. 2(금)	산곡3동	산곡4동
3. 5(월)	청천1동	청천2동

※ 방문일정은 사정에 따라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방문일	오전 10:00	오후 14:00
3. 6(화)	갈산1동	갈산2동
3. 8(목)	삼산1동	삼산2동
3. 9(금)	부개1동	부개2동
3. 12(월)	부개3동	일신동
3. 13(화)	십정1동	십정2동

“내 집 앞 눈 쓸기” 주민 참여 열기 구, 적극적인 홍보 동참 이끌어

“겨울철 안전한 출근길은 나로부터...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손으로 치웁시다.” 부평구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의 문구이다.

2006년 11월 3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후 부평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눈 치우기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눈을 치워야 하는 구간은 보도의 경우 건축물 대지에 접한 구간 전체,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까지 눈을 치워야 한다.

제설 및 제빙시간은 낮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리면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단,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인 경우는 24시간 이내이다.

특히 건축물 소유자가 거주할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제설·제빙 책임의 우선순위를 정했다.

부평구는 눈으로 인한 보행자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22개 동사무소, 관내 188개 아파트 단지, 학교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12월 16일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고 12.8cm의 폭설이 내린 가운데 통·반장, 지역자율방재단, 공무원 등 6952명을 대상으로 “내 집 앞 눈은 내가 치

웁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강설초기에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산곡동의 한 주민은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의무화됐다는 조례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적이 있어 이날 아이들과 함께 동심으로 돌아가 즐거운 마음으로 눈을 치웠다”며 “눈을 치우면서 이웃들과 사는 애기를 나누는 기회가 돼 오히려 반가웠다”고 말했다.

북구지원팀장은 “비치용 염화칼슘이 모두 소모될 정도로 주민들의 참여가 높았다”며 “언제 다시 폭설이 내릴지 모르는 상황이므로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함은 물론 염화칼슘 등 제설 장비를 갖춰 눈이 오면 누구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재난안전관리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개선

7월 1일부터 시행

올해 새롭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되어 실거래 신고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개선, 보완했다.

부동산투기와 탈세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과 같은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 실행되고 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중개업자가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중개업자의 성명을 간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하는 경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 간판을 달도록 하고 있다. 기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정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와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하여 실거래 신고기한을 계약체결일부터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여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그동안 계약체결일을 잔금지급일이나 한달(31일)로 잘못알고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개정된 법률은 7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6월30일까지는 현행대로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된다”고 부평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착오가 없기를 부탁했다.

그동안 실거래 신고담당 공무원은 실거래 신고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거래신고는 인터넷신고 또는 구청 방문신고로 할 수 있으며, 법률안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신고의무 위반시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므로 주민들이 개정된 법률을 잘 알고 대처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기를 부평구 관계자는 부탁했다.

문의 : 지적과 지적정보팀 (☎509-6960)

〈서명옥 기자〉
smo@icbp.go.kr



지난 1월3일 개통한 청천동 73-5번지 ~ 청천동 70-127번지 사이의 도로

청천동 원적산공원 주변도로 준공

청천동 원적산 공원 주변의 도로가 1월3일 준공되어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소되었다.

그동안 청천농장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차량소통이 많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 도로개설

로 인하여 교통편이 원활해졌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가 포함되어 있어서 미관상에도 좋고 주민들이 원적산 공원을 활용하기에 많이 편리해졌다.

〈서명옥 기자〉
smo@icbp.go.kr

자동차세 선납으로 10% 아끼세요

구, 1월중 일시납부면 할인 혜택

지난 1993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자동차세 일시 납부제도’가 최근 급리하락으로 참여하는 납세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세 일시납부제도는 납세자가 연간 세액을 일시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자동차세액에서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자동차세는 2분의 1씩 나누어 제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각각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 일시 납부를 신청하면 연간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고, 그 이후 3월,6월,9월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납부하는 납기 한 이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만 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cc 중형승용차의 경우(신차기준) 연간 세액 519,480원을 기준으로 1월 중에 일시 납부를 신청하면 기준세액의 10%인 51,940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3월중에 신고, 납부할 경우에는 38,960원을 감면 받는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2001년 7월부터 차량 등록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되고, 경감된 세액을 일시에 선납하면 또 1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되어 전년도 납부한 자동차세보다 세금을 더욱 적게 납부할 수 있다.

부평구의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납세자의 절세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자금운영이 가능해져 각종 지역현안사업을 적기에 수행할 수 있다”며 “납세자도 저금리시대에 유용한 자금관리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세를 분할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세무담당부서에 신고하면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인터넷신청(http://etax.incheon.go.kr)도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한 부평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509-6270)에 문의하면 된다.

〈서명옥 기자〉
smo@icbp.go.kr



사진설명

부개2동사무소 신청사 이전

1월29일부터 업무 개시

우리 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신청사가 완공되어 2007년 1월 29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청사 이전과 더불어 부개2동 전 직원은 좀더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의 여가 및 취미생활 향상에 노력할 것입니다.

- 이전일시 : 2007. 1. 27.(토)
- 장소 : 부개동 106-45(기존 청사 부지, 주공A7단지 우측)
- 업무개시 : 2007. 1. 29.(월)부터
- 청사활동

구분	면적	용도
계	1067.32(322.86평)	
1층	324.30(98.10평)	민원실, 상담실
2층	371.26(112.30평)	대회의실, 세미나실, 취미교실, 주민대화방
3층	371.76(112.46평)	체력단련실, 풍물연습장, 동대본부

문의 : 부개2동사무소 (☎ 509-8470)

함께 만드는 좋은 어린이집 사업

구 보육정보센터, 지원대상자 뽑혀

부평구 보육정보센터(센터장 김호인)가 삼성복지재단이 주관하는 ‘2007년 함께 만드는 좋은 어린이집’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센터는 지난해 12월 ‘공개수업을 통한 보육교사의 효과적인 상호작용 지도방법’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 삼성복지재단의 공개심사에 응모했다. 그 결과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돼 1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각각 895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보육교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은 보육시설 평가인증 항목 중 하나로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건이다. 교사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교사와 아동간의 원활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만 친밀감이 높아지고 교육적인 효과도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센터는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상호작용에 대한 전문가의 교육 강의를 3번에 걸쳐 진행한 후 워크숍을 통해 상호작용하

는 모습을 가상극으로 재연해볼 계획이다. 또 실제로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시설 및 관심 있는 시설의 신청을 받아 8곳의 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공개수업을 통한 전문가들의 평가와 지도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실제 상호작용의 여러 유형을 접함으로써 보육교사는 자신의 교수방법을 돌아보고 평가해보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 “여러 보육시설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보육현장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부평구 보육정보센터 (☎ 509-8654) <장경선 기자>
sunny0822@hanmail.net

부평구민 무료정보화교실 교육생 모집안내

- ◆ 모집대상 : 주민등록상 부평구 관내 거주 주민
- ◆ 비 용 : 무료
- ◆ 모집과정

기수	접수기간	교육기간	시간	과목	수준	대상	인원	교육장소
7	1.29(월)~	2. 5~	10:00~12:00 (총20시간)	컴퓨터 기초 인터넷	초급	구민	35명	지역정보센터 (부평3동 4층)
8	1.30(화)	2.16	13:00~15:00 (총20시간)	컴퓨터 활용	중급	구민	35명	백운역 북광장
9	2. 5(월)~	2.12~	15:10~17:10 (총10시간)	사진편집	중급	구민	35명	3번 출구
10	2.20(화)~	2.26~	10:00~12:00 (총18시간)	홈페이지	고급	구민	24명	부평구청 7층
11	2.21(수)	3. 9	13:00~15:00 (총18시간)	컴퓨터 기초 인터넷	초급	어르신 (6009세)	24명	전신교육장

* 교육장소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어르신은 만 60세 이상 구민)

- ◆ 접수방법 : 전화, 방문, 인터넷접수 (http://cyber.icbp.go.kr/)
- (☎509-7570, 6110)

* 아래 해당 구민은 추첨에 관계없이 우선 선발하니 신청시 해당 여부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 ◆ 추천발표 (컴퓨터 추천)
 - 7, 8기 : 2007. 1. 31(수) 11:00~
 - 9기 : 2007. 2. 7(수) 11:00~
 - 10, 11기 : 2007. 2. 22(목) 11:00~
- ◆ 교육대상자 발표 : 추천 당첨자에 한해 개별 전화 연락

기획감사실 지역정보센터 (☎509-7570)

- 2007년도 제1기 인천광역시 청년 - 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인천광역시에서는 청년실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시·군·구, 공사(공단) 등 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인턴근무를 희망하는 청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07. 1. 17~ 1. 31
2. 모집인원 : 230명
3. 모집분야
 - 행정 및 전산사무, 보건, 의료, 약무, 간호, 생활체육(수영, 헬스, 보디빌딩)
 - 유아교사 보조, 생물공학(바이오), 관광, 건축(설계), 통계,
 - 전기, 무대기계·음향·조명설비, 홍보(마케팅), 사회복지, 청소년,
 - 보일러취급, 멀티미디어, 웹디자인, 공연학 관련 전공자
 - 국제교류(외국어가능), 문화예술, 기타 일반 사무보조
4. 지원자격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고졸이상 만 29세이하의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자녀 우선 선발
5. 접수처 : 각 구·군 주민생활지원과
6.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 : 별도 A4용지 1매 내외로 워드프로세서 또는 자필로 기재
 - 주민등록초본 1부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우선 선발(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모·부자 가정 대상자)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가 발행하는 확인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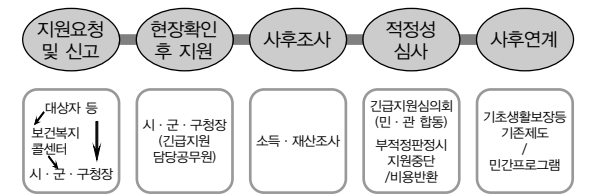
인천광역시 기업지원과 (☎ 440-2942~7)
부평구 주민생활지원과 (☎ 509-6582)

힘 내세요! 긴급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

□ 긴급지원 흐름도



□ 긴급지원대상자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위기사유〉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랑·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구성원에게 소득이 없을 때
- 단전이 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금전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 지원 ○ 최저생계비의 60%* 수준 * 4인1가구 기준 702천원(식료품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등)	1개월
	의료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지원	1회
현물	주거지원 시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에의 또는 임시 이용서비스의 제공	1개월
	그 밖의 지원 ○ 동월기(10~3월) 단방비 6만원 범위 안에서 현물지원 ○ 해산비 및 장제비 : 각 50만원 ○ 긴급요급 : 50만원 ○ 사회복지시설보호금 또는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성립 등 기타 지원	
민간 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최수 제한없음

- 1차 지원연장 -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1월간(의료지원 제외)
- 2차 지원연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최장 2월간(의료지원 1회)
- ※ 부정수급... 양상을 속히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지원요청 및 신고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 관련 부서로 전화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 509-6450)

2007년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세 무 분 야

◀주택 유상거래 취 · 등록세 인하▶

주택공시가격 적용 등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으로 인하여 납세자 세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의 주거안정지원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를 인하하였습니다.

○ **지난해까지는** :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등록세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올해부터는** :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 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1,0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006.9.1.개정)

※주택의 유상거래는 개인 · 법인불문하고 2%로 인하

《중전》	《현행》
- 개인간 거래 2.5% (취득세 1.5%, 등록세 1.0%)	- 개인간 거래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 법인과 거래 4.0% (취득세 2.0%, 등록세 2.0%)	- 법인과 거래 2.0% (취득세 1.0%, 등록세 1.0%)

이 제도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문의** : 세무과 ☎ 509-6240

◀서민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 등록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종전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한 경감 규정의 중복으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지난해까지는** :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아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함.

- 전용면적 40㎡ 이하 : 취득세 · 등록세 면제
-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인 경우 : 취득세 · 등록세 50%경감

○ **올해부터는**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 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함

※ 전용면적 40㎡초과 60㎡이하인 경우 50%경감은 지방세법 개정(2006.9.1.)으로 세율이 인하여어 경감규정의 중복으로 관련규정 삭제

○ **문의** : 세무과 ☎ 509-6240

◀중요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규정 개정▶

중요단체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를 50%경감하던 것을 취득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50%경감하고 등록세는 과세로 전환하였습니다.

○ **지난해까지는** :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요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 구 100만 이상의 시지역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함.

○ **올해부터는** :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요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함.

○ **문의** : 세무과 ☎ 509-6240

◀재산세(건축물, 토지) 과세표준 적용비용 인상▶

재산세(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용이 매년 5/100씩 인상 됩니다.

○ **지난해까지는** : 재산세(건축물, 토지) 과세표준 산정시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용 55%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

※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는 건교부 공시가격에 5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2007년까지).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

○ **올해부터는** : 건축물,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아래의 적용비용을 곱하여 산정함.

- 건축물, 토지에 대한 적용비용(시가표준액 기준)
- 2007년 60/100
- 매년 5/100씩 인상
- 2015년부터 100/100 적용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 **문의** : 세무과 ☎ 509-6250

◀재산세(주택) 세부담 상한제 인하▶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서민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을 인하하였습니다.

○ **지난해까지는** : 재산세 상한을 직전년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의 150으로 함.

○ **올해부터는** :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의 상한을 인하여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 택은 100분의 105,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100분의 110으로 인하여(지방세법 제195조의2)

※ 이 제도는 2006년 6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 **문의** : 세무과 ☎ 509-6250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기준 강화▶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로 인한 지역간, 주택간 과세불형평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재산세 탄력세율의 적용 요건 및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 **지난해까지는** : 시장 · 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안 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올해부터는** : 시장 · 군수는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조정 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100분의 50범위 안에서 가 감조정할 수 있으며,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연도에 한함으로 개정하여 재산세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함.(지방세법 제188조3항)

○ **문의** : 세무과 ☎ 509-6250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써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는 제외함니다.

○ **지난해까지는** : 7~10인승 승용자동차(전방중조자동차 제외) [승합자동차세액 + ((승용자동차세액 - 승합자동차세액) × 66%)] × 50%

○ **올해부터는** : 승용자동차 세율적용의 50%(2007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2008년부터)(인천광역시 감면조례 제11조의2)

※ 승용자동차 세율

배기량	cc당 세액
800cc 이하	80원
1,000cc 이하	100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	220원

○ **문의** : 세무과 ☎ 509-6270

◀사업소세 감면대상 추가▶

현재는 감면 대상이 존재하지 않아서 감면 조례에서 제외 되었으나 향후 발생시 타 군 · 구와의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구세감면조례

를 개정하였습니다.

○ **올해부터는**

-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 최초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간 50% 경감
- 인천광역시신용보증재단,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전경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 면제(인천광역시부평구세감면조례 제9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 **문의** : 세무과 ☎ 509-6280

재 난 안 전 분 야

◀민방위 제도 개선▶

지역실정에 맞는 민방위 계획 수립 ·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대 편성연령 [45세 → 40세]과 교육시간 (8시간 → 4시간) 이 단축 시행됩니다.

○ **지난해까지는**

-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세 이상, 4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민방위 교육 시간
 - 기본교육(연성1~4년차 대원) : ①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 ②교육내용 : 소양 2, 실기 6시간
 - 비상소집 훈련 대상 : 20세이상, 45세 이하의 민방위 대원

○ **올해부터는**

- 민방위대 편성 연령 : 20세 이상, 40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
- 민방위 교육 시간
 - 기본교육(연성1~4년차 대원) : 연 4시간 (1회)
 - 교육내용 : 소양 1시간, 현장체험 · 실기교육 3시간
 - 비상소집 훈련 : 편성 5년차 이상

○ **문의** : 재난안전관리과 ☎ 509-6383

사 회 복 지 분 야

◀청년 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 실시▶

기업들이 직원 채용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실무 경험인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청년층의 인턴근무를 통한 올바른 직업관 형성과 실무능력 배양을 위한 청년 공공기관 인턴십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 **올해부터는**

- 운영대상 : 고교, 전문대졸업생 이상 29세 이하 청년
- 인턴기관 : 시 · 군 · 구, 공사 · 공단, 시 출자법인 등
- 인턴수당 : 1인당 월70만원
- 인턴기간 : 6개월간(1일 8시간 근무)

추진일정					
구분	인원	모집기간 (1개월간)	대상자 확정 통보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교육	인턴근무
17(일반기)	40명	12.16~1.15	1.16~1.31	2.5~2.9	2.12~8.3
22(하반기)	40명	5.16~6.15	6.16~6.30	7.2~7.6	7.9~12.21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 509-6582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지난해까지는** : 위기사유

- ①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급시설에 수용되고 가구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이 없을 때
- ②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인 ·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④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안전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⑤ 생계유지 등의 곤란

2006년 생계지원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418,309	700,849	939,849	1,170,422	1,353,242
					1,542,382

○ **올해부터는** : 위기상황 추가

- ① 이혼으로 주 소득원을 상실한 때
- ② 단전으로 1개월 경과한 때

생계지원 상향 조정

○ 2007년 최저생계비의 100%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금액	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지원종류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지원기간 등	
급진 한별 지원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목적 달성에 필요한 현물제공	1회 지원
	생계지원	의복 · 음식물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지원	1개월 지원 (시 · 군 · 구청장의 결정으로 1개월 연장)
	주거지원	임시거주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	
	그밖의 지원	난방 등 기타 위기정황의 극복에 필요한 금전 또는 현물 지원	
	전기요금지원	단전 1개월 경과 한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1회 지원
민간기관 · 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계 민간의 긴급지원 관련기관 · 단체와의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해당복지시설기준에 우선하여 월1기간 시설이용 횟수 제한 없음	

○ **문의** : 주민생활지원과 ☎ 509-6457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확대▶

○ **지난해까지는**

- 장애수당 ① 지급대상 : 생활시설 입소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인 모든 장애인
- ② 지급액 : 중증장애인 1인당 월 7만원, 경증장애인 1인당 월 2만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① 지급대상 : 국민기초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보호자
- ② 지급액 : 1인당 7만원

○ **올해부터는**

- 장애수당 ① 지급대상 :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120%로 확대
- ② 지급액 :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3만원, 차상위중증장애인 1인당 월 12만원, 경증장애인 1인당 월 3만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① 지급대상 : 확대,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보호자
- ② 지급액 :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0만원, 차상위중증장애인 1인당 월 15만원, 경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

○ **문의** : 사회복지과 ☎ 509-6470

◀장애인 LPG차량지원제도 변경▶

○ **지난해까지는** : 장애인 LPG차량에 대해 소득이나 장애정도과 관계없이 월 최대 250ℓ, ℓ 당 240원의 세금인상액이 지원

○ **올해부터는** : 2007.11 이후부터는 4~6급 장애인에 대한 지원 중단 -1~3급 장애인은 2009년까지 현행수준으로 지원(2010년 폐지) -2006년 11월 1일부터 신규 신청은 더 이상 받지 않음

※ LPG지원제도 변경은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에 한해 지원되던 복지혜택을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확대와 교통약자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

○ **문의** : 사회복지과 ☎ 509-6470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

저소득 장애인에의 일자리 지원이 확대됩니다.

○ **지난해까지는**

-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 고용대상 : 차상위계층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 근로내용 : 동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 활동
- 근로조건 : 주 5일 4시간
- 급여기준 : 월 45만원

○ **올해부터는**

-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 고용대상 : 차상위계층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 근로내용 : 동 주민자치센터도우미로 활동
- 근로조건 : 주 5일 4시간
- 급여기준 : 월 45만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신규)
 - 고용대상 : 저소득장애인
 - 근로내용 : 동 주차단속요원 등
 - 근로조건 : 주5회 4시간
 - 급여기준 : 월 20만원

○ **문의** : 사회복지과 ☎ 509-6470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지원 확대▶

청각장애아동의 재활치료 지원이 확대되어 선천성 청각장애아동의 수술비가 지원됩니다.

○ **지난해까지는**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수술비 지원 및 재활치료
 - 지원대상 : 저소득 청각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시 600만원, 재활치료비 연 450만원(1년) (2~3년 150만원)

○ **올해부터는**

-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수술비 지원 및 재활치료
 - 지원대상 : 저소득 청각장애아동
 - 지원내용 : 수술시 600만원, 재활치료비 연 450만원(1년) (2~3년 150만원)
- ☞ 청각장애아동의 재활치료비지원(수술을 요하지 않으나 난청일 경우)
 - 지원대상 :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 지원내용 : 1인당 150만원 지원(연 3명 지원예정)

○ **문의** : 사회복지과 ☎ 509-6470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신체적 정서적 고립감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의 안정된 생활지원을 위하여 여가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였습니다.

○ **올해부터는** : 독거노인의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비스 도우미 파견

- 파견내용 : 안전 확인 및 복지욕구 조사, 여가 프로그램 지원,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관리

- 파견시간 : 여가 프로그램 지원 도우미, 월 24일 1일 4시간

○ **문의** : 사회복지과 ☎ 509-6485

◀장수수당 지원▶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90세 이상의 장수노인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 **올해부터는**

- 지원대상 : 인천시 관내 3년이상 거주자, 주민등록상 계속 거주자, 주민등록상 만 90세 이상
- 지원내용 : 연 30만원 ~ 연 100만원(표차조)

※ 2006. 4.16 『인천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정 · 공포

지원액 및 지급시기		
지원내용(지원액)	지급시기	지급방법
90세 이상 95세 이상 100세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100만원	생일이 속하는 달 본인이 신청 일시불 지급 (계좌입금)

○ **문의** : 사회복지과 ☎ 509-6485

◀저소득 노인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

중증 노인을 부양하는 저소득 가정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저소득 노인의 실비시설 이용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올해부터는**

- 지원대상 : 저소득 경로연금 지급대상 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 수급 노인, 기타 저소득 노인
- 지원액 : 표 참조

실비시설 이용료 지원액				
지원대상	시설인소 인정점수	지원액	지원방법	
실비요양시설	요양필요점수 40점 50점 미만	월 22만원	해당인소 시설장의	
실비전문요양시설	요양필요점수 50점 이상	월 30만원	청구에 의한 지급	

○ **문의** : 사회복지과 ☎ 509-6485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차상위계층 중증노인에게 가정봉사원과 및 주간보호서비스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올해부터는**

- 지원대상 : 저소득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 건강상태 : 중증 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지원금액 : 월 200,000원

서비스 내용 및 지원기준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지원기준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	신체수발 일상생활 지원 등 일상생활필수직종원 급식 및 목욕, 야간생활서비스 등	1인당 월 10회 (1회 20,000원)	
주간보호서비스		1인당 월 8회 (1월 25,000원)	

○ **문의** : 사회복지과 ☎ 509-6485

◀보육료 지원 및 무상보육확대▶

○ **지난해까지는**

- ①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법정(1층), 차상위(2층), 차차상위(3층), 차차차 상위(4층)까지 지원
- ②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보육료지원
- ③ 두자녀 및 셋째아 보육료 지원
- **올해부터는** : 2007년 3월부터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중산층까지 확대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자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가가구 월평균 근로소득 70%(4층)에서 100%(5층)까지 확대 지원
- ① 지원비율로 법정(1층), 차상위(2층)⇒100%지원, 차차상위(3층)⇒80% 차차차상위(4 층)⇒50%, 5층⇒20%로 확대지원
- ② 보육료 지원단가 전년대비 최고 3% 인상
- ③ 입양아동 보육료는 소득과 관계없이 보육시설 이용 입양아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

○ **문의** : 여성과 ☎ 509-6516

◀저소득층아동 현장학습비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중 법정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현장학습비가 지급됩니다.

○ **지난해까지는**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현장학습에 필요한 경비 지 원, 1인당 연 125,000원 까지 지원

區예산 2006년보다 13.6% 증액

부평구의회 140회 정례회... 2006년 추경예산도 마무리

부평구의회는 지난 12월20일 제14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부평구가 제출한 2007년도 부평구 예산안 2,412억원 보다 약 6억원이 삭감된 2,406억원 규모의 수정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다.

이는 2006년도 당초 예산보다 약 13.6%인 289억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심사과정에서 일반회계는 부평구가 제출한 2,350억원에서 약 6억원을 삭감한 총액 2,344억원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62억원이 변동없이 통과되었다.

이날 확정된 예산은 정례회 기간중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후 예산특별위원회(위원장 황정수 의원)가 지난 12월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2007년도 부평구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인 결과로써 이번 예산심사에는 앞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반영하고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정보와 지식을 통하여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안을 찾아내서 이를 주민을 위한 재원 확보에 사용토록 하였다.



제140회 예산특별위원회.

주민기대 부응한 2006구의회

140회 정례회 마쳐

부평구의회는 지난 12월20일 제140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열전! 24일간의 제140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와 함께 80일간의 2006년도 회기를 모두 마쳤다. 이번 제140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하였다.

정례회 기간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불합리한 행정 등 총 104건을 적발하여 이를 개선토록 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부평구 2007년도 일반, 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당초 부평구 제출 예산안보다 6억원이 삭감된 2,406억원 규모의 수정안으로, 『인천광역시 부평구 2006회계년도 제2회 일반 및 각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였다.

《안전처리 현황》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중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 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로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와 관련 안전심사 및 의결시 "재직위원 3분의 20이상"을 "출석위원 3분의 20이상"으로 개정하기 위함.

■ 인천광역시부평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결] 학교급식법이 2006년6월30일 개정 시행(2007년1월1일)됨에 따라서 성장기 아동의 건강 한 발육을 돕고, 점진적인 무상급식 실현을 통해 아동의 건강권 실현은 물론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농·수·축산인 발전을 돕고자 매년 일반회계의 2%이내의 범위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원준 의원의 8인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세계무역기구협정(WTO) 및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GATT)의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고, 적극적인 법적용시 이미 사회복지 부문에서 지급되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 외의 학생에 대한 지원이 법취지와 다를 수 있고, 또한 현재 다른 조례로 교육경비보조를 하고 있는 구의 여건상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표결결과 부결되었음.

■ 인천광역시부평구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가결] 조례의 내용에 해설의 오해 소지가 있거나 미비한 규정을 수정 보완하고, 일부 규정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현상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폐기물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개정안의 내용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료 변경시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는 조항에 대하여 이를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의결 되었음.

■ 인천광역시부평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 [부결]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단지 안에 설치된 도로, 하수도, 어린이 놀이대 시설 등의 공동시설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과정에서 구의 의결상 재정부담이 과중하고, 특히 일반주거지역과 공동주택의 생활수준 등을 비교할 때 자치형 평형 수준도 예상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표결결과 부결되었음.

■ 2007년도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건 [수정안 가결] 지역간의 노후주택 등을 매입하여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주택장을 확충함으로써 주거밀집 지역의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부평동522-4번지 일원 등 7개소 12필지, 총 토지면적 2,560.8제곱미터, 건물면적 815.01제곱미터를 취득예정자 29억9천72만3천원에 매입하여 의결하여 상정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주차장 시설규모가 3면에 불과하여 공공주차장으로 서의 기능수행 및 사업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평동12-37번지(89㎡)부지를 제외하는 수정안으로 의결되었음.

부평구의회 의장 신년사

신뢰·사랑받는 의회로 다가설 것

존경하는 57만 부평구민 여러분!
희망찬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부평구의 회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새해에는 구민 모두에게 희망과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국운이 융성하고, 우리 부평구의 눈부신 발전을 염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부평구의회는 새롭게 탄생한 제5대 부평구의회 의회의 출범을 계기로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의회가 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보다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부단한 자기개발로 의원에 걸맞는 자질과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했으며,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각종 민생현장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이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 등 유급제 의원들이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왔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부평구의회는 구민들로부터『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실천할 것을 엄숙히 다짐합니다.

구민 여러분의 참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기 위해 기꺼이 57만 부평구민의 귀와 입이 될 것입니다. 부평구 행정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활동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구민의 대의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구민 곁에 한발짝 더 다가서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도 부평구의회 의회 의 주요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부평경제의 활성화와 삶의 질은 부평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부평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나 재래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과 구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첨단산업 유치와 저소득주민 지원사업등 부평구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에 의회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깨끗한 환경과 지역의 문화역량 향상을 통하여 주민들의 행복지수가 더욱 높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부평구 행정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부평구 공무원들의 행정은 바로 구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므로 부평구의 모든 행정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

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평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롭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토록 하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급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주민들의 뜻을 분명히 전하고, 정치권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부평구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친근한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의원들의 활동모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각종 연찬활동의 활성화와 각종 공무하는 의회분위기를 만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의회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친근한 의회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구민들의 진정한 바램이 구행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구의회에서 의원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의정을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부평구의회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기대하오며,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월 1일
부평구의회 의장 권 상 철

부평구의회 2007년도 회기운영 계획안

□ 회기운영 : 총 7회 80일(임시회 5회/45일, 정례회 2회/35일)

회 의	회 기	일 수	주 요 처 리 안 건
합 계	7회	80일	
제141회 (임시회)	1.30(화) ~ 2. 7(수)	9일	○ 주요업무보고 ○ 현장방문
제142회 (임시회)	4.11(수) ~ 4.18(수)	8일	○ 조례안 및 기타안건 ○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보고 ○ 결산검사위원선임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제143회 (임시회)	5.16(수) ~ 5.21(월)	6일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현장방문
결산검사	6. 1(금) ~ 6. 20(수)		2006 회계년도 결산검사
제144회 (정례회)	7. 5(목) ~ 7.16(월)	12일	○ 2006회계년도 결산안 ○ 구정질문 ○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제145회 (임시회)	9. 6(목) ~ 9.14(금)	9일	○ 제1회 추경예산안 ○ 조례안 및 기타 안건 ○ 현장방문
146회 (임시회)	10.10(수) ~ 10.22(월)	13일	○ 2007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 2008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 ○ 조례안 및 기타안건 ○ 현장방문
147회 (정례회)	11.26(월) ~ 12.18(화)	23일	○ 2007년도행정사무감사 ○ 구정질문 ○ 조례안 및 기타안건 ○ 제2회추경 및 2008년도 예산안

※ 본 계획은 행정여건의 변화와 부평구의회 사정에 따라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린파킹(Green Parking) 사업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을 허물어 자가 주차장을 만들고 부수적으로 수목식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에도 많은 지원을 해드립니다.

- 신청시기: 연중
- 지원대상: 단독주택, 다세대, 연립주택 (공동단위사업 포함)
- 지원규모: 1주택 1주차면에 대해 최고 550만원 범위 내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509-6711,6712)

아파트 부설주차장 추가 설치 지원

- 신청시기: 연중
- 지원대상: 아파트(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아파트)
 - 조정시설, 주택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각각 1/2 범위 안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단, 전체 입주자의 2/3이상 동의와 구청장이 그 용도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 지원규모: 총공사비의 90% 범위 내
 - 주차 1면당 500천원, 최고 300,000천원까지
- 신청절차: 입주자 동의 → 행위허가 신청·승인(건축과)
 - ⇒ 아파트 부설주차장 추가설치 신청(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509-6711,6712)

자동차번호판 디자인 변경

1. 자동차번호판 디자인변경

- 가. 시행시기: 2006. 11. 1
나. 규격: 종전대비 세로 폭은 좁아지고 가로 폭은 늘어남
- 현행 번호판 규격은 335×170mm 이었으나, 변경된 번호판은 차량에 따라 기존에 제작된 자동차는 335×155mm, 신규 제작되는 자동차는 520×110mm으로 변경됨.
다. 색상: 바탕은 흰색계통, 글씨는 검정색계통
라. 번호배열: 1열(종전은 2열)
마. 번호판 부착유형
- 자동차제작중에 번호판규격 명시 (짧은 것, 긴 것, 혼합)
-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등록, 주소 이전등록의 경우 번호판 교체
- 자동차소유자의 요청에 의거 기존번호판을 새 번호판으로 교체가능
- 자동차소유자의 요청에 의거 짧은 번호판규격차량의 경우 앞 번호판은 '긴번호판'으로 대체부착 가능
(단, 보조번호판을 덧대야 함으로 이에 따른 소요비용 필요)

	52가 3108	52가 3108
	〈기존번호판〉	〈새번호판〉
	신규등록자동차자 세번호판 교부	

2. 자동차 등록 번호판 및 봉인 수수료

규격(mm)	단위	용도	금액	동인플렛 및 봉인료	부가세	합계
210×115	1매	이륜	2,000원	1,000원	300원	3,300원
335×155	2매	중형(자동차)	7,000원	1,000원	800원	8,800원
520×110	2매	대형(자동차)	9,000원	1,000원	1,000원	11,000원
440×200	2매	대형(자동차)	9,000원	1,000원	1,000원	11,000원

교통행정과 차량등록팀 (☎ 509-6765)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면 시설개선비를 지원합니다

구민들의 주차 공간 제공으로 인한 주차여건 개선과 심각한 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떨어지는 시간에 일반인에게 무료로 개방할 경우 주차장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드립니다.

- 신청시기: 년 중
- 신청장소: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509-6711~12)
- 지원대상 및 규모

구분	지 원 대 상	시 설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① 일반 건축물 (10면 이상)	고철, 사무실 등 일반건축물 (학교제외)	· 주차 노면표시 정비 · 주차구획선, 안내 노면표시, Car Stopper 설치 · 주차장 개방안내 표지판 · 부설주차장에 분리시설(펜스 등) 설치 · 주차장 표지보수 · 기타 부설주차장 개방관련 시설물 설치	· 설치비 95% 범위내, 연당 200만원 최고 600만원까지
② 학교 (20면 이상)	중·초·고·대학교 등 모든 학교	· CCTV 설치비용 · 주차장 출구구 차단시설 설치 · 기타 방범시설	· 설치비 95% 범위내, 최고 400만원까지
③ 역사·역 주변 (20면 이상)	주거·주거형 복합 이용시설을 위한 환승주차 공간으로 개방하려는 아파트지역의 도보거리 200m 이내 세대당 주차장 보유율 70%이상	· 주차구획선비 · 주차장 시설개선 비용 · 방범시설 설치비용	· 설치비 95% 범위내, 200년까지 1,000만원 추가 1천만 200만원 최고 2,000만원까지
의무개방 기간	-지역 금액 기준 (2000만원 이하 1년, 20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2년,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 3년) ※ 단, 학교는 총 지원금액에 방범시설비를 포함함		· 설치비 95% 범위내, 최고 400만원 까지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509-6712)

자동차 의무보험 관련 안내문

- 관련법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규칙
- 자동차의무보험의 가입 주제: "자동차의 보유자"(법 제5조 참조)
-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 차량
 -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50cc이상)
 -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및 아스팔트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및 굴삭기 등)
- 자동차의무보험 구분

배상책임	구분	기본구분		가입의무		구분(명칭)	
		대인배상	자물	II 의무	의무	책임보험	의무보험
대물배상	자기손해	한도이내	한도초과	의무	자율	의무보험	자율보험
		자기손해	자물	자물	자물	(종합보험)	(종합보험)

주 1) "의무"부분은 지배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가입 의무화된 것을 뜻함. (「지배법」제5조 참조)
2) "반의무"부분은 해당법규가처지는 교통사고 야기 시 고의 또는 중대과실이 없으면 공소 면제되는 것을 뜻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4조 참조)
3)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개정(2003.8.22에 따라 2005.2.22부터 대물가입 의무화)

□ 위약시 제재조치

1) 의무보험 미가입발생시: 과태료 부과 (납부기한 지나도 가산금 없음, 분할납부도 가능)

구분	책임(대인)	자물	대물	책임(대인)	자물	대물	책임(대인)	자물	대물
10월이후부터 매1월 초과시	6천원	3천원	3천원	대물	3천원	대물	대물	3천원	대물
최고한도액	1200원	600원	4천원	2천원	8천원	2천원	100만원	100만원	300만원
	20만원	10만원	60만원	30만원	90만원	230만원			

2) 의무보험 미가입상태에서 운행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법 제38조 참조)

※ 집합!

1. 의무보험가입자에 대한 만료시설 통보: 만료일 30일 전까지 보험회사에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나(법 제63조1항), 시행 통지사실이 없다더라도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변동이 없으므로, 정기적으로 보험 만료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미가입 과태료는 대인1, 대물, 대인(영업용) 과태료고지서가 각각 발송됩니다.
3. 미가입 상태에 운행시 과태료부과(509-6746)와 형사처벌(509-6744)은 함께 이루어집니다.

교통행정과 과징팀 (☎ 509-6746)

비누의 변신... 제 삶도 바뀌었죠

비누공예가 김 윤 희 씨

비누공예가 김윤희(삼산동. 39) 씨. 알록달록 예쁜 비누와 함께 해서인지 “우리 나이로 올해 마흔이 되었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고 활기차다.

김윤희씨가 천연비누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5년 전. 친구가 만 들어준 천연비누를 우연한 기회에 사용해보고는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 심한 건성피부였던 자신에게 천연비누가 잘 맞아 열심히 만들었는데, 예쁜 비누가 자신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신기하고 즐거워 비누공예에 차츰차츰 빠져들기 시작했다.

자신을 “무엇이든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일단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고 설명하는 김윤희씨. “처음에는 필요 반, 호기심 반으로 시작했지만 차츰 비누공예에 대해 전문적인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며 “당시 아들 둘을 키우면서 아이들 치다꺼리에 심신이 피곤했지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으니 어떻게든 할 수 있게 되더라”고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음을 얘기했다. 본격적으로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자, 비누공예 강사 과정의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 디자인에 날다른 감각이 있었던 김윤희씨는 계획대로 강사 자격을 취



김윤희 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천연비누 만들기예 몰두하는 수강생들

두 아이 키우다 재미로 시작... 강사자격 취득 문화센터·종교단체 등 강의 바쁜 하루하루

득했고, 2년 전, 드디어 부천의 한 백화점 문화센터 강사로 출강하며 비누공예가로 길로 들어섰다.

김윤희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첫 번째 강의 계획서를 냈던 문화센터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을 때, 그 성취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다”고 회상했다. 지금은 인천, 부천, 김포 등 여러 군데의 문화센터와 종교단체 등의 강사로 활동하며,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지만 “처음엔 그저 예쁜 비누를 만들어 선물하

고, 이웃들과 함께 비누를 만들며 즐거움을 뽐”이라고 말한다. “비누공예 전문가 과정 수업을 받을 당시, 부업이나 창업 같은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다”며 “어떤 일이든 큰 욕심 내지 않고 꾸준히 하기만하면, 결과는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다”고.

초등학교 4학년과 2학년인 두 아들에게 엄마로서 소홀하지 않도록 더욱 부지런히 생활하고 있다는 김윤희씨는 “전업주부들이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나가는 방법은 얼마든

지 있다”고 말한다. 김윤희씨 자신도 “처음엔 아이들이 유치원과 학교에 간 시간을 이용해 문화센터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었다”며 “문화센터나 복지관 같은 곳의 강의는 수강료도 저렴하고 전문가 과정보다 알차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자신에게 필요한 강의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윤희씨의 소망은 여성들만을 위한 작은 문화공간을 꾸려보는 일이다. “앞으로 5년 쯤 열심히 일한 뒤,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부들이 편안하게 취미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김윤희씨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득도 얻을 수 있는 자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며 전업주부들을 향해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오늘 당장 행동으로 옮겨보라”고 권유했다.

현재 김윤희씨는 자신의 강의 과정을 통해 여러 명의 비누공예 전문가강사들을 배출했고, 제자들을 함께 블로그(http://blog.naver.com/myounn/80033257434)를 운영하며 천연비누와 천연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박미혜 기자〉
choice61@hanmail.net



알짜배기 소비자정보 14

대장검사 알고 받으세요

의료피해 예방위해 미리 숙지해야

- * 대장 검사 전 자신의 상태 (가족력, 과거병력, 수술병력, 복용중인 약물)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알맞은 검사 방법을 전문의와 상의해 선택한다.
- * 대장 검사 중 복부 통증이 심한 경우 반드시 알려서 합병증 발생에 대비하고 검사종로나 귀가후에도 이상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을 방문해 합병증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 * 내시경을 받을 때는 내시경 전문의인지 확인하고 검사를 받으며 검사와 관련된 사전 처치 및 주의사항을 잘 따른다. 대장 검사와 관련해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 의료인에게 자세 한 설명을 요구한다.
- * 대장천공은 주로 의사의 주의 여부에 따라 발생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S상 결장'은 골굴 이 심해 과도한 조작을 하거나 환자의 특성상 장의 유착이 있는 경우 천공이 많이 발생하므로 'S상 결장' 부위에 내시경을 삽입할 때는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검사를 시행하다가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확인 및 협의 진료를 통해 합병증에 따른 확대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 * 현재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는 '소화기내시경 세부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장 천공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은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내시경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 * 일반적으로 복부 수술을 한 적이 있거나 장 유착이 심한사람, 장이 예민하고 긴 사람은 대장 내시경 검사 시 대장천공의 발생 확률이 높으므로 전문의와 상담하여 대체수단인 대장조영술을 통한 검진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연령이나 검진 목적을 고려해 개인의 특성에 맞는 검사방법을 선택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대장암 검진 권고안에 따라 적절한 검진을 받아야하며, 대장조영술 검사 후 대장내시경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반드시 받도록 한다.

〈대장암 검진 권고안〉

- * 검진연령 : 50세 이상 남녀 *검진주기: 5~10년
- * 검진방법 : 대장내시경 검사(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중조영 바륨관장 검사+S결장경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 * 상기 자료는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 “소비자시대”에서 발췌하였으며, 가정에서도 개별 구독 가능합니다.(02-3460-3300)



세금이야기 39

지방세 달라진 것 들

□ 납세자 세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2006. 9. 1부터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를 인하하였습니다.

종 전	현 행
○ 개인간 거래 2.5% - 취득세 1.5%, 등록세 1.0%	○ 개인간 거래 2.0% - 취득세 1.0%, 등록세 1.0%
○ 법인과 거래 4.0% - 취득세 2.0%, 등록세 2.0%	○ 법인과 거래 2.0% - 취득세 1.0%, 등록세 1.0%

※ 주택의 유상거래는 개인·법인 불문하고 2%로 인하

□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종전 4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한 경감 규정의 중복으로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종 전)	(현 행)
○ 전용면적 40㎡이하인 경우 - 취득세·등록세 면제	○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인 주택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 함
○ 전용면적 40㎡초과 60㎡ 이하인 경우 - 취득세·등록세 50경감	

※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한함

□ 재산세(건축물, 토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이 매년 5/100 씩 인상되어 2007. 1. 1부터 60%가 적용됩니다.

(종 전)	(현 행)
○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55%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	○ 시가표준액에 적용비율 6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적용.

※ 주택의 적용비율은 50%로 하고 2008년부터 매년 5%씩 인상

취득·등록세 부담 확 줄었습니다

□ 2006. 6. 1부터 서민주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시 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재산세 상한을 인하하였습니다.

(종 전)	(현 행)
○ 재산세 상한을 직전년도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의 150으로 함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100분의 105로 인하 ○ 공시가격 3억원초과 6억원이하주택 - 100분의 110으로 인하

□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및 등록세가 2007. 1. 1부터 다음과 같이 달라졌습니다.

(종 전)	(현 행)
○ 7~10인승 승용자동차 자동차세는 (진행조종자동차 제외) [승합자동차세액 + ((승용자동차세액 - 승합자동차세액) × 68%)] × 50%	○ 승용자동차 세율적용의 50% - 2007년부터 ○ 승용자동차 세율과 동일하게 적용 - 2008년 부터

(종 전)	(현 행)
○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록세는 - 자동차가액의 4.32% 적용	○ 7~10인승 승용자동차 등록세는 - 자동차가액의 5% 적용

※ 부평구에 등록된 차량소유자가 자동차세를 1월중에 년세액을 신고·납부하시면 년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과 자동차세팀 509-6270]

문 의 : 세무과 취득등록세팀 (☎ 509-6240)
재 산 세 팀 (☎ 509-6250)
자동차세팀 (☎ 509-6270)

주택담보대출 더 힘들어진다

총부채상환비율 40% 전 금융권 확대 적용

지금까지 'DTI 40%' 제한은 투기 지역이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하였으나, 2007년 1월 2일부터 국민은행이 DTI(총부채상환비율) 40% 규제를 적용 실시하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2월부터 전국 금융권에서 거의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이 제도로 어느 금융회사를 가더라도 고정 소득이 적으면 담보로 잡힐 집의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지게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40%는 연간 상환하는 대출금과 이자의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것. 금융회사가 담보물의 가치와 관계없이 대출 받은 사람의 빚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대출 심사를 하기 위해 적용하는 기준이다.

예를 들면, DTI는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원

리금상환비율로, DTI 40%(금리 6%, 10년만기)가 적용되면 연소득 3000만원인 경우 9500만원(원리금상환액1200만원)까지, 연소득 5000만원은 1억 6000만원(원리금상환액 20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다.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여유돈이 없다면 2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도 빠듯한 셈이다.

이럴 경우 고정소득이 적으면 담보로 잡힐 집의 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결과적으로 주택 세인들의 내 집 마련 꿈은 더욱 멀어지게 된다.

금감원은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적용면적 25.7평)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거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DTI 40%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김금연 기자〉

choi5876@hanafos.com

동절기 및 설 연휴 대비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1. 발화초기의 안전조치

화재가 발생하면 처음 발견자는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즉시 소화기, 모래, 옥배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불을 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사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조심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 없이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대피해야 하는데 이때는 연소 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여야 한다.

2. 불이 난 건물 내에 갇혔을 때의 조치요령

- 건물 내에 화재발생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주위까지 접근하여 대피가 어려울 때에는 무리하게 불로나 계단 등을 통하여 대피하기 보다는 문틈을 물에 적신 수건으로 막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간헐적이거나 사살을 외부로 알린다.
- 연기가 세어들이고 오면 낮은 자세로 옆으로 엎드려 천장을 따라 움직여 대피한다.
- 화재가 일기 쉬운 열악이나 팔 등을 물에 적신 수건 또는 두꺼운 천으로 감싸 화상을 예방한다.

- 아무리 위급한 상황일지라도 반드시 구조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기다려야하며 창 밖으로 뛰어 내려가거나 불길이 있는데도 함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전기화재 주요원인 및 예방대책

1. 누전이란?

전선 피복이 손상되어 전선의 철근이나 전기기계 기구함 등의 금속부분을 통하여 전기가 흐르는 현상

2. 누전 예방대책

220V 전압 공급지역에서는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고, 110V 지역에도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면 누전발생시 자동으로 차단되어 더욱 안전하게 사용가능

3. 합선이란?

전선이 낡아 선과 이 맞닿은 상태로, 아크와 동시에 고열이 발생하는 현상

4. 합선 예방대책

- 용량이 큰 전기기계기구를 동시에 여러 개 사용제한
- 후배선에서 피복이 벗겨져 합선되는 경우 우가 많으므로 전기설비관리예 유의
- 과전류 발생시 전기를 차단하는 정적 용량의 퓨즈 또는 차단기를 사용

5. 용량 초과로 인한 피해

옥내배선이나 배선기구의 용량을 무시한 채 분야발생선 등으로 많은 전기기구를 사용하여 되면 과전류로 인해 전선이 맞닿아 아크와 함께 고열로 인한 화재발생

6. 용량 초과 예방대책

- 열 발생하는 전기기구는 반드시 콘센트에 한 개의 기구 사용
- 규격전선 사용
- 비닐전선은 용량초과 사용시 위험이 크므로 규격전선 사용

7. 전기안전 3대 수칙만 지켜도 90% 전기화재 예방 가능

- 불법시설의 금지 및 임의 시설공사 안전지침
- 하용 전류치 이상의 부하사용 금지(전열기 등 동등 사용제한)
- 누전차단기 주기적인 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

가스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 1. 가스누출시 응급조치 요령
 - 쿨락과 안전벨트를 잠근다.
 - 창문과 출입문을 열고 환기를 시킨다.
 - 화기 및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 도시가스회사로 연락하여 점검을 받는다.

2. 자율 안전점검 요령

- 배관/호스 누출점검
 - 배관의 부식 또는 휘어진 곳은 없는지 확인
 - 호스가 타거나 그을린 곳은 없는지 확인
 - 배관, 호스 연결부에 누출 등으로 도포후 누출여부 확인
 - 사용중 불꽃 점검
 - 점화시 불구멍에 확실히 불이 붙었는지 A/S를 받은 후 사용

확인

- 가스 사용 중 불은 불꽃 상태가 계속되면 사용 중지, 도시가스로 신고
- 보일러/배기통 점검
 - 배기통이 빠져거나 깨져있지 않은지 확인
 - 연소상태 이상 및 소음, 진동, 과열, 이상한 냄새 발생 즉시 가스차단 후 도시가스로 연락
 - 보일러실 점검
 - 보일러실은 주기 공간과 별도 분리 설치되었는가, 환기구 및 배기구를 막지 않았는가 확인
 - 보일러 주변에 인화성 물질을 비치하지 않았는지 확인

3. 계절별 가스안전 사용요령

- 명절연휴
 - 고향을 찾아가 장기간 집을 비울 때는 가스기의 쿨락과 중간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
 - 가스렌지 사용 중에는 수시로 파란 불꽃이 유지되는지 확인
 - 고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스렌지 가 나지는지 확인하고 창문을 열어 충분히 환기를 시킨 후 사용
- 동절기
 - 보일러 가동 전 연통은 빠지거나 끼여진 곳은 없는지 확인
 - 연결부위 누출로 가스누출은 없는지 확인 및 급기구나 환기구는 막지 않았는지 확인
 - 보일러에 진동, 소음 또는 불꽃이 빨간색일 경우 보일러 제조회사에 연락하여 A/S를 받은 후 사용

2007년 1월은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지방세는 주민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유익하게 쓰이오니 납세자께서는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자동차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세 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 과세 기준일 : 2007. 1. 1 현재

■ 납 부 기 간 : 2007. 1. 16~ 1. 31

■ 납 부 세 액

① 1종(177) : 45,000원 ② 2종(133) : 36,000원 ③ 3종(184) : 27,000원

④ 4종(150) : 18,000원 ⑤ 5종 (18) : 12,000원

■ 납 부 방 법 : 은행납부 및 인터넷 납부

① 은행납부 : 인천시내 금융기관 · 세마을금고, 전국농협 및 우체국

② 인터넷 납부

☞ 인터넷지서사이트(www.giro.or.kr) 접속

☞ 본인외 지방세 납부방법

⇒ 납부고객을 클릭 ⇒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GIRO 클릭

⇒ 받은청구서함 ⇒ 확인후 결제제과 등록하여 납부

⇒ 납부고객을 클릭 ⇒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 조화납부 클릭

⇒ 주민등록번호, 납세번호 입력 ⇒ 확인후 결제제과 등록하여 납부

☞ 인천시 전자납부 사이트(eltax.incheon.go.kr) 접속

⇒ 회원가입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지방세내역조회 ⇒ 주민등록번호 or 전자납부번호입력 후 조회 ⇒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납부(모든 은행계좌 이체납부 가능)

※ 지방세 납부를 지원하는 은행의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민·신한·외환·우체국·산업·새마을금고·한국시티은행 등)

■ 고지서 발송예정일 : 2007. 1. 10(우편발송 예정)

■ 문 의 처 : 세무과 주민세팀 (☎509-6280)

※ 세부사업면 폐업신고하고 인·허가 기관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은 세무사업장명원을 세무과 주민세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주민세팀(509-6280)

부평구공고 제 2007- 호

2007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공모 및 지원사업 시행공고

평생교육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학습동아리를 활성화하고 평생학습공동체를 만들어 평생 학습 분위기를 확대 조성하고자 2007년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공모 및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29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신청지역

- 부평구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되어 있고, 현재 활동 중인 10인 이상의 성인 학습동아리

- 구성에 있어서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야 함

- 정해진 주제에 대한 학습과 토론의 과정을 통해 모임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야 함

- 활동의 결과실행 함께 평가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비전이 있어야 함

- ※ 제외대상 : ① 해당교 소수의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 ② 영리목적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모임 및 동아리 ③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행정기관의 보조를 받는 사업 ④ 장사치 리다가 되어 일정한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학습자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모임이 아닌 강사의 성격을 갖고 있는) 모임 등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년 3월~11월

- 총사업액 : 7,000천원(동아리당 50만원의 14개 동아리 선정 지원)

- 사업지역 : 부평구내에 한함

3. 신청서류 (부평구평생학습센터 http://icbhall.se.kr에서 다운로드 사용)

- ①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1부, 참가서류 디스켓에 저장하여 별도제출

- ※ e-mail로 발송 가능함. 한글2002version으로 저장바람

4. 신청기간 및 접수장소

- 신청기간 : 2007. 2. 1(목)~ 2. 15(목) 9시~6시

- 신청방법 : 방문 원본접수

- 접수장소 : 부평구평생학습센터(부평구청 5층)

- 신청문의 : 부평구평생학습센터 ☎ 509-6280

5. 지원내용

- 지원규모 : 한 동아리 당 50만원, 총 14개 동아리(지원금액은 사업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 학습활동(강사비, 교재비 등)경비 ▲ 학습내용의 실천을 위한 활동경비 ▲ 지역 내 환원을 위한 활동경비 ▲ 부평구평생학습축제 참가 시 참여리활동 용보 · 전시 및 체험할 운영 등의 활동경비

- ※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중앙정부나 등에 중복 제출한 경우, 동일(또는 유사) 사업으로 행정기관에서 보조금 을 받은 사업 제외

- 결과공보 : 2007년 2월 27일 안

- 신청동아리별 개별 활동 및 부평구평생학습센터홈페이지 공고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평가

- 보조금 지급 : 선정된 학습동아리에 한하여 ① 07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지원금 교부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

- 평가 : 사업완료 후 ① 07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지원금 신청서 결과보고서, 및 ① 07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를 평가

- ※ 사업결과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 2007년 12월 10일한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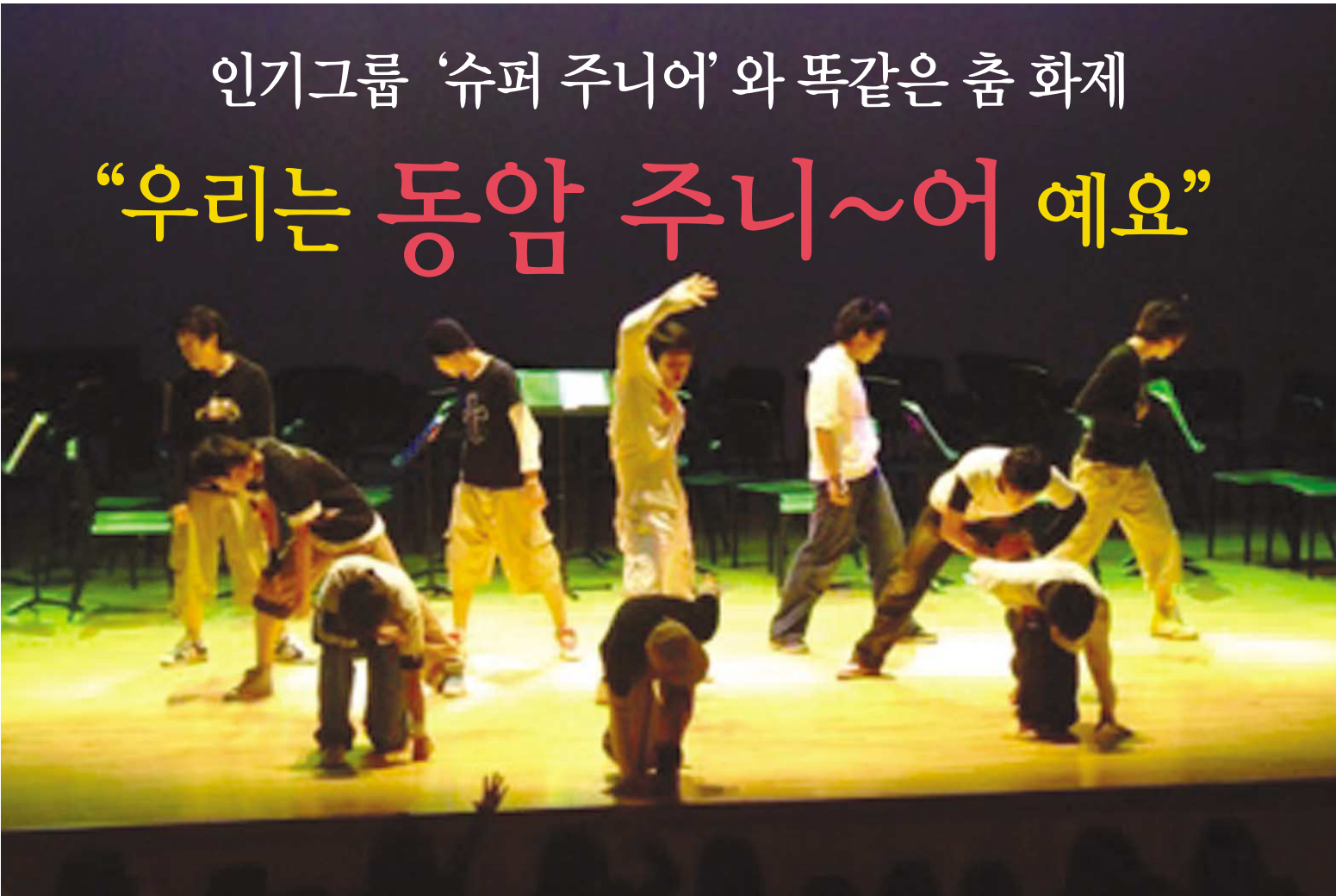
8. 기타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습동아리는 지원금을 환수(환수)함.

-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습동아리는 아래의 부평구평생학습센터 학습동아리 향상사업에 적극 참여 및 협조

- 예) 1. 각종 평생학습축제 학습동아리 전시·발표회 참여 및 자원봉사 활동

- 2. 학습동아리 연수 참가 3. 학습동아리 커뮤니티 홈페이지 활용



네이버 검색 1위를 차지할 만큼 인기가 많았던 동암주니어의 인천북부축제 공연

“이렇게 하면 돼?” “좋아. 아까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자 다시 한번 맞춰보자.” mp3로 음악을 틀어 놓아 크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학생들의 표정은 꽤 진지해 보였다. 인기 그룹 ‘슈퍼 주니어’의 노래에 맞춰 똑같이 춤을 춘다는 입소문과 네이버 검색 1위로 웬만한 학생들은 다 알고 있다는 ‘동암 주니어’, 그들을 만나러 주안에 있는 연습실을 찾았다. 11월에 있었던 학교 축제에 참가하려고 여름부터 연습했다는 그

들은 현재 동암중학교(교장 김준기) 3학년 10명으로 구성되었다. 그중 리더를 맡고 있는 강건웅 학생의 담임인 김정미 교사는 “축제 때 춤을 추는 것을 보니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축제가 끝난 후 아이들도 무척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인천북부축제 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는데 이렇게 인기가 있다니 뿌듯하네요”라고 후뭇한 미소를 짓는다. 그 후 부평여중 뮤직페스티벌에도 찬조 출연을 제의받은 멤버들은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자는 다짐

을 하고 공연을 하였다.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이들의 무대를 지켜 본 아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어버린 동암주니어, 중학교 생활의 마지막 추억을 확실하게 남기게 되었다. 멤버 중 한명인 박상혁(17) 군은 “춤 아쉽고 섭섭하기는 하지만 멋진 추억으로 남을 거 같아요. 중3이어서 이제는 고등학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이지 않고 몇 명만 취미로 건물이 에게 춤을 배워요”라고 전했다. 강건웅(17) 군은 “저는 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능 쪽으로 진학하려고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친구들과의 우정도 깊어지고 너무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건데 간혹 불량학생들의 모임으로 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은 속상했어요”라며 속내를 털어 놓았다. “이제는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 동암주니어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거 같아며 밝게 웃었다. <윤희수 기자> fondly00@paran.com

작가와 엄지족의 경계를 넘어

생활의 발견

사진작가 김영갑은 “사진은 삼시간의 황홀이다”라고 말했었죠. 빛의 수사학이니, 기다림의 미학이니 하는 작가적 사진론을 뺀다면 카메라 기능의 휴대전화화 전 국민의 손에 쥐어진 요즘 ‘사진은 일상과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땐 주머니에서 잠시 꺼내어 찰칵찰칵 일상을 담아 보세요. 당신의 엄지 끝에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세상이 잡힙니다. 엄지손가락 하나로도 세상을 움켜쥘 수 있는데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올 한해도 당신의 위대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김용운 편집위원>

얼쑤~ 신나는 효행봉사단

부평공고 9년째 경로잔치 열어

부평공업고등학교(교장 김철현)는 해마다 86명의 효행봉사단 학생들과 교사들이 독거노인과 아파트 노인정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갖는다. 학생들이 경로잔치를 하는 것이 그다지 특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9년째 계속되는 행사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처음에는 약 30여명의 독거노인들을 중심으로 잔치를 벌였지만, 지난 12월 2일에는 약 2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성대하게 치렀다. 학교 측에서는 어머니회 회원들의 도움으로 점심을 준비하고, 인근 한의원에서는 무료로 한방진료를 해 드렸다. 또한 부평공고 밴드 동아리인 ‘이카루스’가 노래와 연주로 여흥을 돋아 어르신들에게는 즐거움을, 학생들에게는 보람 있는 하루가 되었다. 행사의 마지막으로 효행봉사단 단원들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집까지 모셔다 드림으로써 모든 행사가 마무리되었다. 효행봉사단 단원들은 “어르신들과 하나가 되어 효를 몸소 실천해 보니 무척 보람 있고 즐거운 하루였다”며 소감을 밝혔다. 효행봉사단을 지도하는 김종갑 교사는 “학생들에게 인생교육의 일환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으로써 갖추어야 할 올바른 가치관을 적절히 함양할 뿐만 아니라 호 정신을 널리 전하고자 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윤희수 기자> fondly00@paran.com

‘독서도우미에서 독서이꿈이로’ 인천교육우수사례 발표 대상

신촌초교 학부모 김수영 씨

인천광역시 교육청 주최로 열린 제3회 인천교육 우수사례 발표에서 신촌초교(교장 진정진)의 김수영 학부모가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학부모로서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김수영씨는 독서 동아리를 활동을 계기로 학교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동아리활동을 하면서 제일 먼저 눈을 돌린 곳이 학교 도서관이었다. 도서관이라고 하기에는 무척 열악한 공간이었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많은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몇 년씩 묵은 책을 정리하며 도서관 꾸미기에 앞장섰다. 그 결과 2005년

엔 도서관을 개관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하였다. 그녀가 독서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남는 것은 토요일방학송이었다. 등굣길에 그냥 동요를 들려주는 것 보다 아이들의 정서를 맑게 해주고 무언가를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자는 신념으로 시작하였다. 2명이 한조가 되어 시낭송, 동화작가 이야기, 음악의 세계, 만화이야기, 마술 등 다양한 장르를 준비하여 생방송으로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 외에도 책 속의 내용을 동화로 들려주는 오페레타 공연, 전교생들과 함께하는 독서퀴즈대회를 개최해 독서도우미에서 독서이꿈이로 가는데 성공하였다. 김수영씨는 “아이들을 위해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건 강한 치맛바람을 일으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 프로그램이 벌써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1월말엔 대구에서도 발표를 가진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윤희수 기자> fondly00@paran.com

인천영어마을로 어학연수 보낼까

일주일간 외국인과 대화하면 자신감 ‘쑥쑥’

영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방학이 되면 ‘우리 아이 어학연수 어디로 보낼까?’ 하고 고민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어학연수를 가지 않고도 영어권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체험하며 원어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인천영어마을이 바로 그곳이다. 인천영어마을은 학생들에게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조기유학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인천영어마을의 프로그램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인기 있는 ‘5박6일 프로그램’은 초등 학교 4~6학년 (매 기수당 25명 입소)대상으로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활용한다”라는 생각을 토대로 마련된 인천 영어마을만의 차별화 된 프로그램이다. 또한 5박6일 동안 직업체험, 생활체험, 문화체험, 자연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 영어 체험 학습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인천광역시의 문화 및 역사를 알고 영어로 홍보하는 ‘인천홍보대사’

가 되어보는 기회도 체험할 수 있다. ‘주말영어학교’는 4~6학년 대상으로 12주 과정이며 입학테스트로 선발하고 있다. 5박6일 프로그램이 영어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단계라면 주말영어는 지속적인 이고 다양한 학습을 통해 실질적인 영어 구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일일 체험’은 초등학교와 중학생 대상으로 매주 일요일에 실시하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1차는 마감된 상태고 2차는 3월19일부터 인타넷을 통해 접수한다. 2007년 2기 체험단 교원인 학생은 “영어마을에 오기 전에는

『제2기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모집

부평구에서는 On-Line상 주민참여의 일환으로 규정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제2기 부평사랑사이버모니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모집기간 : 2007. 1. 22(월) ~ 2. 5(월)
- 모집대상 : 부평구 거주 주민
- 자 격
 - 인터넷 및 이메일 사용 가능자
 - 구정에 관심이 많고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
- 지원방법 : 부평구 홈페이지 (http://www.icbp.go.kr)신청 접수
 - 구 홈페이지 팝업존에서 『제2기 부평사랑 사이버모니터 모집』 클릭
- 활동 및 지원
 - 규정 주요업무에 대한 시책 · 현장모니터링 · 설문조사
 - 수시 주민불편사항 등 구정에 건의, 제보
 - 선발된 모니터는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 무보수 자원봉사 원칙(정기적 활동 보상은 지급하지 않음)

자치행정과 자치지원팀(☎ 509-6142)

재래시장상품권 이용은 인천경제를 활성화 시킵니다

- ◆ 상품권 종류 : 5천원권, 1만원권
- ◆ 유통시장 : 부평종합시장, 진흥종합시장, 심정종합시장, 부평역상가4 개소(부평역, 신부평, 부평중앙, 부평대야), 시장로타리 지 하상가
- ◆ 판매 및 환전 : 관내 전 세마을금고
- ◆ 발행자 : 인천시장상인연합회
- ◆ 2007년부터 달라진 사항
 - ▶ 법인신용카드 사용 가능
 - 대사카드 : BC, 신한, 국민, 외환, 삼성, 현대, LG, 롯데
 - ※ 우리구에선 부평중앙세마을 금고(간사 세마을금고)에서만 취급
 - ▶ 상인 가맹점 수수료부담 해소로 언제든지 가맹점 가입 가능
 - ▶ 익일 수시로 상품권 환전 가능

※ 푸근한 인정과 정겨움이 묻어나는 재래시장 상품권과 함께 훈훈한 명절을 보냅니다

부평구 경제과(☎ 509-6552) 시장상인연합회(☎ 471-1387) 부평중앙세마을금고(☎ 526-7771)

2006년 17기 보육시설평가인증 통과시설 안내

보육시설 평가인증이란 평가인증지표와 지침서를 기준으로 보육시설의 현재운영 수준을 점검하고 진단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보육시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며 평가인증을 통해 보육시설의 질적 서비스 수준과 보육시설장, 보육교사의 전문성이 신장되며 보육시설을 선택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는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영아들에게는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평가인증은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의 4단계로 이루어지며 한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는 데에는 약 9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번 과정을 거쳐 2006년 17기 보육시설평가인증 참여시설 중 인증 통과시설이 선정되어 2006년 12월 발표되었기에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평가인증 보육시설 현황

연번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1	대동어린이집	부개2동 130-6	525-1900
2	살롱에덴어린이집	일신동 94-1	502-4688
3	세실프리스쿨	산곡3동 324-17	505-6040
4	이웃사랑어린이집	갈산1동 183-2	504-5992
5	중부어린이집	부평1동 182-23	528-4022
6	청천어린이집	청천1동 103-3	505-5606
7	한울메이커어린이집	산곡2동 124-23	263-4662

■ 2006년 17기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명단

연번	시설명	소재지	연락처
1	꿈나무문테소리어린이집	심정1동 324-1	438-4545
2	목련어린이집	산곡1동 93번지	517-0320
3	새솔어린이집	부평5동 167-15 19/5	527-5732
4	색동원어린이집	부평2동 760-137	519-1836
5	에일문테소리어린이집	부평1동 798-15	526-3248
6	인천YWCA삼산어린이집	삼산동 157 삼산어린이집	527-3665
7	자연과아이들어린이집	부평1동 61-2	507-5111
8	작은세상어린이집	부평동 767-155 희망빌라 101호	521-4630
9	포근한어린이집	부평1동 동아아파트 25동 105호	516-2002
10	햇살어린이집	청천1동 19-18	525-3734

여성과 보육행정팀(☎ 509-6514)

‘부평구여성합창단’ 단원 모집

부평구여성합창단은 합창을 사랑하며 아끼는 순수한 여성합창단으로 아래와 같이 단원을 모집하오니, 책임과 애정을 갖고 함께 하실 여성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모집요강

- 모집인원 :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00명
- 자격요건 : 부평구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45세 미만의 여성(성악에 재능이 있거나 합창에 열정을 가진 분 환영)
- 모집기간 : 2007. 1. 22(월)~2. 5(월)
- 접수방법 : 문화공보과 예술진흥팀(509-7516) 인터넷(부평구 홈페이지)
- 선발방법 : 오디션 (자유곡, 음역테스트)
- 연습시간 : 주 2회 (화, 금요일 10:30~12:30)
- 연습장소 : 부평구청 7층 회의실
- 대우 및 활동
 - 무보수 명예직, 합창단복 및 가방 제공
 - 급식비 및 간식비 제공
 - 정기연주회 개최, 각종 공연 및 행사 참가, 전국대회 참가

문화공보과 예술진흥팀(☎ 509-7516)

일하는 즐거움 건강한 노년

부평 노노홈케어사업단

“며느리가 나를 파들리는 것 같아 외로워요. 아무 쓸모 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76세 할머니) “속상하졌어요. 하지만 며느리 입장에서 우리 같은 노인은 고통의 존재일 수도 있어요. 집에만 있지 마시고, 많이 다니세요.” (74세 상담원) “외롭고 허무합니다. 나 죽으면 내 장례는 누가 치러주나 걱정도 되고...” (75세 할아버지)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우리 나이면 다들 그렇잖아요.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친구들도 만나시고 운동도 해보세요.” (71세 상담원)



부평 노노 홈케어 사업단과 지역의 어르신들이 나누는 대화다. 노인들은 이렇게 남에게 하기 힘든 얘기를 자연스럽게 털어 놓는다. 상담원들은 따뜻한 위로부터 따끔한 충고까지 서슴지 않는다.

서로가 처지를 공감할만한 또래 어르신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상담뿐 아니라 예절교육과 환경교육 등 다양한 곳에서 젊은이들 못지않은 활동을 하고 있다.

부평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부응한 노인사회참여일자리 를 제공하기 위해 부평구노인복지회관에서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마련하고 있다.

대상은 65세 이상 중에서 희망자에 1일 4시간, 주3일 근무로 1인당 월 20만원의 보수가 지급 된다.

담당을 맡은 노인복지회관 박경자(45)씨는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는 건강을 가져다드립니다.

일이 없으면 몸도 편찮아지시거든요.” 그러기에 노인 일자리는 복지와 연결된다고 전한다.

일자리 사업에서 하는 8개 사업장 중 ‘고치미 주거 개선사업단’은 노인 가정 세대에 위험과 불편이 초래되는 생활환경을 조기 발견하여 예방·점검·수리 및 보수 등을 개선하여 안정된 일상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씩 건강한 노인이 홀로 지내는 취약계층 노인을 찾아 보살피는 해피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526-4447 박경자 사회복지사)

부개동 재가케어복지사업단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노인들이 있었다. 송내, 부평지역을 대상으로 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재가케어복지사업단(이하 생협복지사업단).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받아 14명의 건강도우미들이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찾는 곳은 42곳의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치매·뇌졸중 등 만성질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저렴한 비용으로 돌보고 있다.

부개역 인근에 자리한 생협복지사업단에서는 아침마다 사무실 한편에 둘러앉은 건강도우미들의 관리책임 맡고 있는 박옥경(38)씨가 파견 나갈 가정의 특성 파악 및 환자의 상태에 대해 주의사항을 전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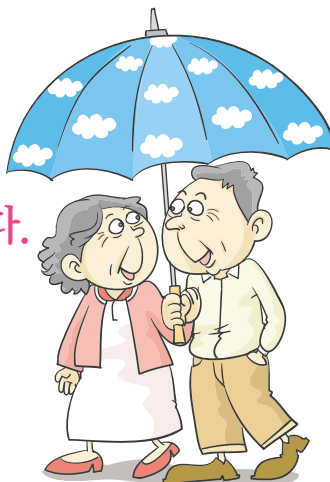
회의를 마친 박옥경씨와 함께 방문한 간병가정은 뇌졸중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한 올해 74세의 노환병(가명)씨 때. 42곳의 간병가정 중 가정환경이 그래도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한다. 특히 이날은 환자의 목욕을 시키는 날이라 정은정, 하영수, 김란 씨 등이 같이 출동을 했다. 보통 1명이 한 가정을 방문하나 목욕을 시키는 경우 힘도 들고 혹시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3명이 1개조가 되어 방문을 하게 된다.

“이곳은 가장 생활환경이 가장 좋은 곳이지만 대부분의 가정이 추운 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렵다보니 대소변 처리를 해야 하는데 더운 물이 없어 찬물로 뒤처리하는 등 간병인들의 고생이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박옥경 씨는 현장의 어려움을 답답하게 전한다.

간병가정 42곳 가운데 22곳만이 유료다. 내는 비용은 사는 형편에 따라 모두 다르다. 월 4천원, 1만원에서부터 30만원까지 사는 형편에 따라 차등해 받는다. 통상적 간병 비용과는 도저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 그렇지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극빈층을 제외한 나머지 가정들 역시 이것도 버거워 하는 형편이다. 생협복지단은 노인일자리와 노인서비스를 동시에 해결하는 아름다운 곳이다.

(☎503-6912 박옥경 팀장)

〈이혜선 기자〉 kcrplus@hanmail.net



노인은 젊은이의 미래다.

늙는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변환점이다.

노인은 일하고 싶다.

일하는 노인은 늙지 않는다.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모집

부평구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부응한 노인사회참여일자리 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강하고 일하고자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을 마련하였습니다. 참여 어르신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어르신들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선발대상 : 65세 이상의 참여 희망자 중 신체노동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국민기초수급자 신청제외, 단 사업별로 60세~65세 미만 가능)
○ 근무조건 : 1일4시간, 주3일 근무로 1인당 월 20만원

의 보수가 지급(환경지킴이, 공동작업장, 인력파견형 제외)

○사업개시 : 2007. 3월 초

○모집기간 및 접수처

-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노-노 홈케어 사업

- 2007.2.1~2.14, 각 동사무소에서 접수

- 기타 사업 : 2007.1.15 ~ 1.31, 부평구노인복지회관 및 부평구청에서 접수

○문의처 : 부평구노인복지회관(526-4447)

부평구청 사회복지과 효실천팀(509-6482)

〈모집인원〉

사업	사업명	참여인원	사 업 내 용	사업기간	활동지역	자격 기준
공익형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220명	동네 뒷골목 거리청소 및 주민개도 등 환경개선 활동	3월~7월 8월~12월	관내	• 65세~75세의 신체 건강하고, 노동이 가능한 어르신
공익형	어린이공원 관리원	30명	관내에 지정된 어린이공원에 배치되어 시설물 관리, 청소 등의 활동으로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함	3월~9월 (7개월)	관내 어린이공원	• 65세~75세의 신체 건강하고 노동이가능한 어르신
교육형	부평사랑방 봉사단	40명	관내 어린이집에 소정의 교육을 받은 어르신들이 강사로 파견한자 및 예절교육을 통해 유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	3월~12월 (10개월)	관내 어린이집 및 방과후 공부방	• 60세 이상의 고졸학력으로 한자, 기타교육이 가능한 어르신
복지형	노-노 홈케어사업	84명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하여 가사지원, 말벗 등 재가서비스 제공	3월~11월 (9개월)	관내 독거 노인 가정	• 65세~75세의 신체 건강하고, 노동이 가능한 어르신
복지형	고치미주거 개선사업	15명	노인 가정 세대에 위험과 불편이 초래되는 생활환경을 조기 발견하여 예방·점검·수리 및 보수 등을 개선하여 안정된 일상생활 지원	3월~10월 (7개월) (8월 휴무)	관내 주거개선 가정	• 집수리 등 주거개선 경험이 있는 60세 이상 어르신
복지형	은빛교통 봉사단	30명	노인들의 보행이 많은 교통혼잡 및 위험지역, 주택가나 노인복지이용 시설 주변 등에 배치	3월~10월 (7개월) (8월 휴무)	관내 교통 혼잡지역	• 65세 이상의 책임감이 높고 건강한 어르신
복지형	보듬이 사업단	25명	관내의 특수학교(학급)에 다니는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과 보호 및 여가 활동을 제공함	3월~10월 (7개월) (8월 휴무)	관내 일반학교 학습도움실	• 60세 이상의 고졸학력으로 특수 교육과 아동에게 사랑이 많으신 어르신
인력 파견	노인인력 파견사업단	30명	학교화장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 공간을 전담 청소 용역	3월~	관내 학교 및 청소용역업체	• 65세 이상의 건강한 남·녀 어르신
시장형	은빛ilter	60명	자제 그룹을 형성하여 특정 물건을 생산, 조립하여 수입을 만들고, 일자리를 생성하는 활동	1월~12월 (12개월)	관내 공동작업장 주공단지 경로당	• 단순 생산업 가능한 65세 이상 신체 건강한 어르신

〈이옥주 기자〉
okju1997@hanmail.net

활동해보니

노노 홈케어
김 중 분 씨



가르쳐보니

실버강사
장 원 진 씨

“가사일·말벗...
너무 행복해요”

70의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건강하고 젊어 보이는 김중분씨. 수줍은 목소리로 “전 말도 잘 할 줄 모르는데...”라며 쑥스러워 한다. 그러나 막상 말문을 트니 청산유수다. 그만큼 일을 하면서 할 이야기가 많았던 것이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니 주위를 돌아볼 틈도 없이 살아왔어요. 나이가 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마음이 자꾸만 죽음으로 달려가는 느낌이었지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에 홀로 사는 노인들을 방문하여 가사 지원, 말벗 등을 해주는 노-노 홈케어란 일을 하게 되었지요. 이 일을 하면서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비록 내가 가진 게 아주 작은 능력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행복해 보진 처음이었어요. 앞으로도 일을 계속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라며 일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다.

김중분씨는 독거노인 두 가구를 일주일에 세 번을 방문하여 가사일과 말벗이 되어준다. 가끔은 글을 모르는 노인들의 자잘한 세글문제도 해결해 주는 민능 해결사가 된다.

“하루는 할머니가 전화요금 폭지를 보여주면서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니봐 달라기에 왔더니 6개월이 연체되어 엄청난 금액이 나왔더군요. 연체된 것을 모르고 그냥 방치해 두었던 거죠.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일처리를 모두 해결해드렸더니 너무 고마워하시더군요. 별거 아니었지만 제 마음도 아주 흡족했지요. 혼자 사는 노인 분들은 이러한 사소한 일처리로 하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지요.”

그 외에도 많은 이야기 거리를 풀어놓던 그녀의 얼굴에선 옅은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일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빛나게 한다는 사실을 김중분씨는 몸소 실천하며 보여주고 있다.

“천사들과 만남...
이것이 보람”

“아침에 ‘여보, 다녀오리다’하고 가방을 들고 힘차게 문을 나설 때의 기쁨.

‘저 늙은이가 무슨 일거리라도 있는가 보다’하고 부러운 눈길을 보내는 이웃.

“할아버지”, “한문 선생님”하며 반갑게 맞아주는 어린이들의 해맑은 모습.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동화를 경청하며 공상의 날개를 펼치는 순진한. ‘한 일, 두 이, 동서남북, 상하좌우’ 소리 높여 따라하는 어린이들의 진지한 태도. 이 모두가 나를 즐겁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순간들입니다.”

장원진(71)씨는 행복한 할아버지 선생님이다. 부평사랑방봉사단 1기로 담당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매주 월, 수, 금은 천사들을 만나러 천국으로 간다.

2006년 3월 실버교육과정과 마치고 4월부터 산곡동 하나문테소리 어린이집으로 일주일에 3번 출근한다. 6~7살 어린이들에게 한문과 구연동화를 가르치며 아이들과 함께 호흡한지 9개월, 일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다. 그는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의 일원으로 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평생 하던 사업을 접고 집에서 지내던 중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실버강사. 그의 얼굴은 환한 미소로 가득 찼다. 일을 하면서 더없이 얼굴이 편안해졌으며 일은 노인에게 삶의 에너지라고 말한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아이들 얼굴을 떠올리며 ‘어떻게 하면 보다 쉽고 기억에 남는 수업을 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교안을 준비하는 시간 또한 땀을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라고 말하는 장원진 할아버지.

실버강사는 하루에 4시간씩 활동하고 한달에 20만원씩 급여를 받는다. 결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 돈은 고스란히 아이들 교육에 필요한 준비 자료로 지출한다. 돈 보다는 일하는 즐거움이 더 행복하다는 그의 말에서 이 땅의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제공이 시급한 과제임을 새삼 느끼게 한다.

40세이상 홀수년 출생자 무료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2월부터 시행



사진설명

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07년도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세대주 또는 만40세 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이다. 또한 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전년도 미수검자는 지사에 방문 또는 전화(1577-1000)로 신청하여 검진확인서 수령 후 검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관계자는 “대부분의 검진대상자들이 후반기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10월쯤이면 웬만한 병원은 암 검진 예약이 거의 끝나기 때문에 자칫 원하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도 있습니다”라며 미루

지 말고 검진을 받을 것을 권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시대에 맞추어 행사장과 지역을 방문, 찾아가는 서비스를 펼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가입자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검진하는데 대중하지 않을까, 각 병원의 장비들이 믿을 만 한 것인가, 능력 있는 의료진들이 진료하고 있는가’하는 생각들이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검진기관들이 대상에 적합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는가, 검진담당

〈건강검진 기관〉

병원명	전화번호	위치	암검사 여부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암
성모자병원	510-5046-7	부평6동	●	●	●	●	●
인천중앙병원	500-0241-5	구산동	●	●	●	●	●
부평세림병원	509-5400	청천2동	●	●	●	●	●
다사랑병원	270-1273-4	부평동	●	●	●	●	●
부평성심병원	504-9966(331)	청천1동	●	●	●	●	●
부평중앙병원	513-5500	부평동	●			●	
부평정병원	528-3114(110)	부개2동	●	●	●	●	●
우리사랑병원	522-7555	부평4동	●			●	●
동수녹십자의원	525-7531	부평6동	●	●	●	●	●
부평내과의원	522-7563	부평1동	●			●	
인천제일의원	502-6002-3	일산동	●			●	
굿모닉의원	521-5433	삼산동	●		●	●	
세강정형외과의원	507-8833-4	청천동					
부평정진의원	506-5010	산곡1동	●		●	●	
평화의원	524-6911	부개1동	●	●		●	●
제일외과의원	519-2314-5	부평1동		●		●	
부평사랑내과의원	526-0075	산곡2동	●		●	●	●
일신의원	502-7717	일산동				●	

자의 진찰상태(수검자에게 수시 문의)와 진료의 적극성, 각 해당 항목들을 성실히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는가 등을 현지 확인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만약 실사를 통해 건강검진기관으로 적합하지 못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연구결과 꾸준히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10년 후 진료비가 약 2배정도 차이가 난다. 검진

결과에 대하여 일년에 약 1500여명 정도를 선별하여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의 목적은 생활습관질환과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있습니다”라며 노후까지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검진을 통한 자기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 부평지사 (1577-1000) <김수경 기자> rtr42@hanmail.net

건강백서 1 김 남 호 부평구사회장

대사증후군



오늘날 마스크의 발달로 인하여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도 많은 의학지식을 알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은 놀라워서 불과 반세기만에 인간의 수명을 거의 두 배 가까운 80세 정도까지 늘려 놓았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살이에 관심을 쏟는 것도 아마 이러한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은 마스크에 자주 등장하는 의학 용어 중 대사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면 중풍이나 심혈관계질환을 쉽게 일으키므로 참살이에 역행하는 못된 질환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이 그렇듯이 그 원인을 알고 예방에 힘쓴다면 능히 질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사증후군이란 인슐린저항성으로 인한 내당능장애,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여러 가지 질환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존재하여 심혈관계 죽상경화증의 발생위험이 높아지고, 따라서 뇌혈관 및 심혈관계질환이 쉽게 올 수 있는 일련의 질환군을 말합니다.

진단 기준은 아직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지만 최근의 추세는 다음에 열거하는 5가지 중 세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굳어지는 듯합니다. 첫째, 복부비만(남: 허리둘레 > 90cm, 여: > 85cm), 둘째, 높은 중성지방(150mg/dl), 셋째, 낮은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남: < 40mg/dl, 여: < 50mg/dl) 넷째, 고혈압(> 130/85mmHg), 다섯째, 공복혈당장애(> 100mg/dl) 등이 그것입니다. 이런 진단 기준을 세우는 이유는 이 질환에서 동맥경화증의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가 용이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뇌혈관 및 심혈관계질환을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이 질환의 원인은 유전적인 영향,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과식, 약물남용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혈당을 조절하는 우리 몸속의 호르몬인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나고 결국 당대사 이상, 고혈압, 이상 지혈증 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병의 유병률은 미국의 경우 34.5% (남 33.7%, 여 35.4%)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에는 23.6% (남 22.1%, 여 27.8%)이었던 것이 2001년에 28.0%로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선진화, 서구화된 식생활, 인구의 고령화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병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역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체중관리가 될 것입니다. 비만이 있는 분들에게 10kg의 체중감소는 총 사망률을 약 20%, 혈압을 약 10~20mmHg 정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으로는 저염식, 소식,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중간간도의 유산소운동을 한번에 40분 이상, 일주일에 4회 이상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은 약물치료를 효과로 보기도 합니다. 또한 각 질병에 대한 치료, 이블레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약물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가장 좋은 치료는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을 건강하게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 생활습관을 바꾸어서 율해부터는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산 한번 오르면 ‘보약 한제’

2003년 3월 산곡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주민의 건강과 화합을 목적으로 뫟골산악회를 발족,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노양근(54) 산악회 회장은 “산 정상에 오를 때면 ‘오늘도 보약 한 제 먹었구나’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더욱 챙길 수 있는 것이 등산이 아닌가 싶어요.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산에 오르는 사람은 누구나 욕심을 버리게 되고 선량해 집니다. 마음을 비우니 자연스레 몸과 마음의 건강이 따라 오더군요”라며 산을 좋아하는 이유를 말했다. 뫟골산악회는 약 2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5쌍의 부부는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다. 서정용(69), 손봉자(69) 부부는 산을 타면 저 금슬이 더욱 좋아져 노년의 황금기를 즐기며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처음에는 건강 때문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자연의 벼를 얻었다며 등산 애찬론을

발족 4년맞은 산곡4동 ‘뫟골산악회’



전남 영암에 위치한 월출산의 최고봉인 천황봉(해발 809m) 정상에 오른 회원들

펼친다. 기억에 남는 일은 월악산 산행 중 대부의 ‘제일산악회’를 만나 자매결연을 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도 두 산악회는 서로 다른 지역 문화를 교류하고 있으며, 산행 날짜를 맞춰 가끔씩 만나 친목을 다지고 있다.

또한 일반산악회와는 달리 회원을 대부분이 마을 주민이다 보니 산곡4동 자생단체에 가입하여 각종 봉사활동도 겸하고 있다. 우선 내 주변부터 청결하게 하자는 생각으로 마을 청소는 물론 가까운 철마산을 찾아 나무도 가꾸고 등산객들이 버린 쓰레기도 치우며 산에 대한 소중함을 이웃주민들에게 일깨우고 있다. 앞으로의 계획은 주민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산악회로 더욱 거듭날 것과 봉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한다. 뫟골산악회는 매월 넷째 주 화요일 산곡고등학교 정문(동산유치원앞)에서 7시에 출발한다. 등산을 원하는 사람은 차량배차 및 보험 등의 관계로 산행 3일 전까지 미리 연락을 취해야한다. 회비는 거리와 장소에 관계없이 1회 2만원이다. (513-2211) <김수경 기자> rtr42@hanmail.net

음식만으로 감기 잡는다

겨울철의 불청객 감기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특히 방학을 맞아 평소 학교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자녀들이 늦은 취침과 기상 등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감기에 노출되어 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감기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 감기를 다스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김수경 기자> rtr42@hanmail.net

겨울철의 불청객 감기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특히 방학을 맞아 평소 학교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자녀들이 늦은 취침과 기상 등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감기에 노출되어 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감기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 감기를 다스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김수경 기자> rtr42@hanmail.net

겨울철의 불청객 감기는 가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범이다. 특히 방학을 맞아 평소 학교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던 자녀들이 늦은 취침과 기상 등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감기에 노출되어 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감기에 좋은 음식들을 찾아 감기를 다스리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김수경 기자> rtr42@hanmail.net

「박선생 창익역사교실」

초등역사논술지도사 2기 모집

○ 교육내용 : 이 시대가 요구하는 비교 분석 통찰력을 우리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시대별이 아닌 주제별 학습으로 노작활동을 통해 차별화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 교육기간 : 2007. 2. 5~4. 13

○ 교육시간 : 총19강 오전10~12:30 (2월 월, 목 3,4월 수, 금)

○ 수료 후 특전 : 지도교사 자격증 취득, 홈스쿨 개설 방과후 교사 · 문화센터 출강 알선

○ 문의 : 인천지사 ☎ 543-9949 / 010-6780-4304

무료 건강 진단

부평구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부평구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대상 : 부평구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 장소 : 부평구 보건소 2층 검사실
- 준비사항 : 주민등록증, 8시간 금식(저녁 9시 이후부터 금식하시고 다음날 오전에 오세요)
- 기간 : 연중
- 검사항목 : ▲ 혈액검사(혈당, 간기능, 지방간, 고지혈증, 간염, 빈혈, 매독, 에이즈, 헤당, 신장 등) ▲ 소변검사(요당, 요단백) ▲ 흉부X선 촬영(폐결핵) ▲ 골다공증 검사 ▲ 제1형 당뇨병

유료 건강 진단

- 대상 : 무료대상 이외의 주민
- 검사항목 : 위와 같음(골다공증검사, 체성분 검사는 무료이며, 부평구민만 해당)
- 금액 : 8,000원

부평구보건소 검사실(☎ 509-8274)

2007년도 장애수당 등 지원제도 변경안내

구분	지원대상	변경 전	변경 후
18세미만 장애아동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애아동부양수당 -1급: 월 7만원 ◇ 장애수당 -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	◇ 장애아동부양수당 -중증: 월 20만원 -경증: 월 10만원
	차상위계층	-	◇ 장애아동부양수당 -중증: 월 15만원 -경증: 월 10만원
◇ 시설수급자는 장애수당지급, 중증: 월 7만원 / 경증: 월 2만원			
18세이상 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	◇ 장애수당 -중증: 월 7만원 -경증: 월 2만원	◇ 장애수당 -중증: 월 13만원 -경증: 월 3만원 ◇ 선택형복지 -활동보조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 -중증: 월 12만원 -경증: 월 3만원 ◇ 선택형복지 -활동보조서비스 또는 유료 요양시설이용료(월 27만원)
장애인LPG차량보조금	장애인 LPG 차량소유자	◇ 소득이나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월 최대 2500 지원	◇ 신규지원종단-06.11.1부터 ◇ 4~6급지원종단-07.1.1부터 ◇ 1~3급지원종단-10.1.1부터

사회복지과 장애재활팀 (☎ 509-6476)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안내

1. 대출조건

가. 대출(추천) 금액

(1) 신규 : 세대당 2,800만원 이내 (전세보증금의 70% 이내)
(단, 3자녀이상 세대는 3,500만원 이내)

(2) 갹신 : 증액된 금액 이내 (전세보증금 70% 범위내)

나. 이율 : 연 2.0%

(1)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 제출시에는 연 3.0%

(2) 전세금반환제약당도시에는 연 2.5%

다. 상환방법 : 15년 원리금균분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일시상환)
- 대출금액의 50%범위 내에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선택 가능

2. 신청시기

가. 신규계약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나. 계약갱신 : 계약 갹신일(월제에서 전세로 전환시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대출대상자

원천광역에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서 전세 보증금 4,000만 원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3자녀 이상 세대는 5,000만원 이하)

(1) “저소득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동법에서 규정한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200이하인 자

(2)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세대주

(3) 대출 신청일 현재 부양가족(배우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만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509-6494) 각 동사무소 사회담당

2007년 신규노인복지사업

» 독거노인파견 도우미사업

-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실질적인 독거노인
- 사업내용 : 주거와 건강안전 확인 및 여가프로그램 제공
- 시행방법 : 주기적 방문과 전화확인 및 지역자원 연계
- 문의처 : 부평구청 사회복지과

» 노인돌보미 지원사업

- 대상 : 부양을 필요로 하는 차상위계층
- 사업내용 : 차상위 계층에게 20만원 상당의 바우처(이용권)를 제공하여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시행방법 : 대상자 발굴 → 바우처 발급 → 서비스이용 → 비용 청구(사업기관) → 비용지급(구청)
- 문의처 : 부평구청 사회복지과

» 장수수당

- 대상 : 인천시 관내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 중 만 90세 이상인 자
- 사업내용 : - 만90세(91~94) : 연 30만원
- 만95세(96~99) : 연 50만원
- 만100세(101세이상) : 연 100만원
- 시행방법 : 거주지 동사무소 신청서 접수
- 문의처 :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복지과 효실친팀(☎ 509-6489)

독 / 자 / 글

아버지 잇속을 처음 들여다보니...

“두들길 수가 없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몸이 마르셨어요?”

모처럼 아버지 어깨를 주무르다가 뼈가 앙상하게 잡혀 손바닥을 으므리고 툭툭 칠 뿐 주먹 쥐고? 두들길 수가 없었다. 지난여름 휴가 때와는 다르게 너무 거무튀튀해지시고 말라깽이가 되셨다.

“음~ 당이 있어서 그런가벼.” “아니예요. 시아바넵은 당 때문에 살이 쪼서던데요?” “이가 부실해서 잘 못 먹으니까 그런가보다.” 옥수수 알처럼 촘촘히 고르게 박혀있던 아버지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아~ 해 보세요.” 난 아버지 잇속을 들여다보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양쪽 윗니 어금니가 구석까지 죄다 빠져있었다.

아랫니 가운데 한 개는 잇몸 약화로 흔들리고....., 어금니로도 못 씹고 앞니로도 못 씹고.

“아버지 널 당장 치과 가서 X-ray 찍고 검사해요. 당 때문에 치료를 못하는 건지.”

“아녀, 코앞이 철십인데 얼마나



이 수 진 (부평3동)

산다고”

“아니예요. 이제 철십인데 드시는 것 시원찮으면 어찌시려고요?”

“치과가면 돈인데 그게 뭐 이삼 만원 하는 줄 알어? 검사해봤는데 틀니 해야 한다더라” “얼마 든대요?(속으로 7,8백 들겠거니 했다.)”

“90만원 든데 그게 누구 이름이나?”

“네? 그것밖에 안 들어요? 당장해요. 제가 3백만 원 마련할 테니 당장요.”

아버지는 요즘 두 달여간 일 하신다고 객지에 계신다. 아스팔

트 도로 공사장에서 몰차 운전을 하신다. 그래서 오늘 비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 집에 다녀오라 휴가를 취 팔네 집으로 오신 거다. 공사가 거의 끝나가 이젠 일산으로 옮길 예정이라.

난 “이것까지만 하시고 옮길 때 그만 두세요”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하루 일당이 4만원 조금 넘는다 우리 같은 늙은이에게 누가 그렇게 주긴디? 그 돈이면 많이 받는 거여. 사실 내가 네들한테 부당 안주려고 돈 좀 모아서 이 치료할까도 했는디 그것이 영~(한숨).?”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자주 아버지 어깨를 주물러드렸더라면 잇속을 들여다보았더라면... 한 시간만 5만 원짜리 수업하면서 거만 떨고 어지간한 3만 원짜리 수업은 남 주고 그랬는데 아버지 하루 종일 4만원 벌려고 먼지 날리는 공사현장에서 노가다 인부로 생활하시다니 정말 죄송해요. 평생 자식에게 신세 안 지려고 애쓰시는 것 다 알아요. 집에 게

실 땀 끈 돈 번다고 두 분 머리 맞대고 마를 까시고 좀 안 보이신다 해서 여쭙면 강원도 채석장에서 돌 실어 나르거나 노란 학원차 운전, 관광버스 운전, 동사무소 가서 공공근로 알아보시고 나이 많아 안 된다더라 실망하실 때.

정말, 아버지 저 서글퍼요. 아버지 땀에 저 실 수가 없어요. 아버지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려주시던 말씀 “몸은 죽으면 썩어진다. 살아있을 때 많이 부러먹어라.” 그래서 제가 더 멈출 수가 없어요. 저 용서하세요. 제 자식이 뼈통게 난다고 몇 백만 원씩 들면서 교정하면서도 아버지 잇속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못난 딸 용서하세요. 염치없어 눈물만 나고 이 불효를 어찌 빌어아할지....., 서러워서 못 견디겠습니.

아버지, 오래오래 사세요.

새해 다짐

2007 황금돼지해

강 민 정 (부평4동)



사만 해도 시간이 훌쩍 지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재밌기도 하고 매우 바쁠 경우 약간 난처할 때도 있다.

그리고 아빠, ‘사람은 봉사를 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해주시며 말뿐이 아닌 실천으로 꼭 옮기시는 멋쟁이시다. 요즘에는 엄마께서도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하시는 엄마와 아빠를 볼 때면 자랑스럽고 가끔은 우리 4남매보다도 봉사활동에 더 신경을 쓰셔서 생이 날 때도 있지만 산 교육을 시켜주시는 부모님께 감사드린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 많이 봉사하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부평4동에서는 실천을 한 적이 없어 올해에는 꼭 이를 실천 하리라 다짐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오늘도 약속한다.

지금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씩씩하게 나라를 지키고 있는 든든한 큰 동생, 철없는 누나를 대신해 부모님과 가족을 챙기는 동생이 잘 지내는지 걱정되지만 동생에게 들은 군 생활이 좋고 편한 것 같아 안심된다. 그리고 우리 집의 늦둥이 동생들, 나이차가 많아 거의 키우다시피 한 동생들은 내가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자극제가 되고 있다.

중학생 동생은 어느덧 키가 나를 훌쩍 넘어 작다고 놀려대고 힘이 부족 세진 막내 동생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놀리며 이렇게 시골벽적 남들의 부러움을 사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즐거운 가족들과 지난 주말에는 2007년 새해를 맞아 강화도의 보문사에 다녀왔다. 올해 가족 첫 나들이를 가서 한해의 각오도 다지고 시원한 자연의 향기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오니 황금 복이 병풍째 굴러들어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보문사에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처럼 뜻 깊은 새해를 보내기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에서 나와 우리 가족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힐찬 한 해가 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든다. 황금돼지해에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데 검증된 말이 아니라고 해도 새로운 꿈을 꾸는 모두에게 건강과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길 바란다.

과거는 잊자



이 은 영 (십정2동)

우리에게는 미래와 현재를 공감하면서 다시금 한번 반성하면서 내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도약 할 수 있는 또 도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잠깐 가는 단어가 있다.

그것은 바로 ‘과거’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다. 솔직히 나는 이제까지 과거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유쾌한 뜻을 알지 못하고 혼자 슬퍼하면서 힘들어하면서 후회하면서 살아 왔다. ‘과거’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는 유쾌한 뜻, 그것은 바로 위에서 말했듯이, ‘반성, 도전, 도약’이라는 유쾌한 뜻이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면 지금 우리네 삶이 너무 빠르고 각박하고 쫓기고 쫓기면서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

사회라는 곳이 우리네 삶을 이렇게 정신없게 만들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지금까지의 내 삶도 마찬가지였다. 항상 바쁘고 쫓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고, 물론 삶 자체를 즐기는 방법도 모르고 살아왔다. 정작, 내 자신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나에게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면서 살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내 삶의 방식을 반성하고 새롭게 다짐하련다.

나는 학교를 휴학하기 전 학교일에 늘 치이면서 살아왔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대표에다 학교임원이라는 직위 때문에 언제나 학교만 가면 정신이 없었다. 그렇게 내 건강을 생각하지도 않고 학교일에 치이면서 거의 미치듯이 살았다. 하고 싶은 공부가 있어도, 해야 될 공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일 때문에 리포트도 거의 못할 때도 많았다. 그러면서 성적도 떨어지고, 주위 분들에게 적잖은 피해도 드리면서 그렇게, 그게 행복인줄 알고 바보같이 살아왔던 것이다. 하지만 작년 2학기 때 나는 이 모든 상황에 슬슬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휴학을 하면서 각오는 단단히 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 또한 있기에 나 스스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휴학을 결정했다. 하지만, 물론 작년 한해에 힘들었던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좋은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었다. 그것은 내가 졸업한 모교에서 ‘진로의 날’이라는 행사를 맞아 ‘일일명예교사’를 했기 때문이었다.

학교축제날 수백 명의 학생들과 총장님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행사진행을 할 때 전혀 떨리지 않았으나, 고작 30~40명 되는 학생들 앞에서 너무 긴장한 나 자신을 발견했다. 그것은 아이들의 눈에서 나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의 눈빛을 생각하면서 작년의 과오를 반성하면서, 과거는 잊고 이제에는 새로운 마음과 다짐으로 한해를 시작하련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내가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련다. 행복이라는 작은 열쇠는 나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배웠다.

나는 이 작은 열쇠를 위해 올 한해도 내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전진하는 한해를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나는 내 자신의 소중함은 내가 만들어 가고 가꾸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2007년 한해도 열심히 뛰고 전진할 수 있는 삶을 즐길 줄 아는 그런 한해를 만들어야겠다.



정직한 이들의 세상을 바라며



그 후 얼마 가지 않아서 진나라는 천하를 통일하였다.

신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신의를 잃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은 필경 인간됨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디 한두 사람의 일인가.

돌켜켜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상 보기 드물게 짧은 기간에 경제적인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어 냈다.

필자와 같은 세대를 산 사람이라면 아직도 어린 시절의 그 지긋지긋한 가난과, 학창시절 서슬 퍼렇던 독재의 아픈 경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경제발전이니 민주화니 하는 이런 것들을 마냥 자랑스러워 할 수 없는 것이, 그 자부심의 다른 일면에 우리에게 보이는 것, 돈을 벌되 어떻게든 벌어도 된다는 천박스런 자본주의와 눈

앞의 작은 이익이라면 기본적인

인 룰(rule)조차 지키지 못하는 조폭 문화 그것에 다름 아니다.

아이들이 착하고 정직하면이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하고 걱정을 해야 하는 사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능력이라 여기는 사회. 위선과 거짓말을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서 먹고 사는 것이 바쁘다고

우리는 잃어버린 지조차 모르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다. 겁이 나고 우울해 진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까지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만큼 아름답다는 믿음을 가진 착한 이들이 적지 않음과 다음 세대를 이어갈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있음을 기뻐하자.

정직한 그들의 세상을 바라며 이 사회의 힘 있는 자들에게 폴란드 작가 쟁키비에치의 소설 ‘쿠오 바 디스’에서 풍류관이라 불리는 페트로니우스가 로마 황제 네로에게 죽음으로써 보내는 글 한 구절을 인용하고자 한다

“에미와 형제를 죽이든, 로마에 불을 지르든 다 좋지만 제발 그 시만은 짓지 말아라. 그 노래만은 하지 말아라”

(김영민 편집위원)



디 / 카 / 요 / 너



같은 날 면접보고, 같은 날 입사해서 함께 근무한 지 벌써 1년. 이쁘고 상냥하고 착실한 동료였기에 직장 생활이 즐겁고 편했습니다. 게~속 함께 근무를 하고 싶지만 큰 꿈을 펼치기 위해 며칠 후면 이직을 해야 하는 나의 어린 동료. 항상 좋은 일만 생기길 바랍니다! 정은순(부평5동)

디카코너

주제는 따로 없으며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진설명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분께는 문화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 이메일주소 : bupeople@icbp.go.kr

날 말 퀴즈

(가 로)

1.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넷을 이르는 말
3. 물건을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물건이 가지는 사용 가치나 교환 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완전 물건이다.
5. 지혜와 재주가 씩 뛰어난 사람
7. 한용운의 법호
9. 인도에서 3천년에 한 번씩 꽃이 핀다고 하는 상상의 나무
11. 부부를 낮추어 이르는 우리말

(세 로)

2. 해군에 소속되어 있는 배. 흔히 전투에 참여하는 모든 배를 이르며, 전함·순양함·항공모함·구축함 따위가 있다
4.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삼장법사와 함께 천축에 가서 불경을 가지고 돌아오기까지 있었던 일을 그린 작품
6. 단세포로 된 최하등의 미생물
8.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뜻. 번뇌가 사라지는 곳이라고도 한다.
10. 만화를 전문으로 그리는 사람
12. 맹두만 하며 맛이 새콤하고 달

(자녀호 정답)

(가로) 1. 어록 2. 염주 3. 도원결의 4. 이여도 5. 하수구 6. 속키자 7. 백일몽

1	2			4		
			3			
				5		6
7	8		10			
	9					
			11		12	

(세로) 4. 이무기 7. 백록담 8. 몽유도원도 9. 주치의 10. 결과 11. 부평구 12. 대하

(당첨자)

이상원(삼산2동) 정순옥(십정2동) 신윤철(부평6동) 김영렬(산곡3동) 서다혜(부개2동)

※ 당첨자는 2007년 2월1일부터 15일까지 부평구청 3층 문화공보과로 오셔서 문화상품권(2만원 상당)을 수령해 가지기 바랍니다(날말퀴즈 추첨은 2월15일까지 소인된 우편에 한함)

보내실곳

• <403-701>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로 266 부평구청 3층 문화공보과 부평사람들 담당자 앞
• 이메일 : bupeople@icbp.go.kr(날말퀴즈는 우편 접수에 한함)(독자투고 원고는 8매 이내)

독 / 자 / 시

지난 사랑에 슬퍼하지 말자

지난 사랑에 슬퍼하지 말자

지금 당신에게 찾아오는

그 사랑에 충실해 보자

지난 사랑은 지난 사랑일 뿐이다

다시 예전으로 돌리기엔 너무 멀리 돌아왔고

너무 많이 깨져 버렸다.

지금 당신 앞에 놓여진 사랑에 충실해 보자.

당신에게 지금 예전 그보다 더 나은 사랑이 기다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용기를 갖고 다가가 보자.

당신을 향해 두 팔 벌리며 달려오는 그 사랑을 맘껏 안아보자.

조 현 우 (청천2동)



24시 편의점 이 점 순점장

“청결 · 친절로 단골 늘렸죠”

두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던 이점순(49) 점장이 편의점 업계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2004년 9월이었다.

남편이 직장에 다니고 있지만 첫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는 혼자 버는 것으로 두 아이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명신 여고 맞은편에 점포를 얻어 창업했다.

헤미리마트를 선택한 이유는 체인점에 대한 신뢰도 있었지만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어 관리가 수월할 뿐 아니라 손님을 대할 때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들 수 있는 여성에게 유리하다는 점이 맘에 들었다.

주부로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청결함으로 손님에게 늘 친절과 다양한 상품들로 손님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1년이 지나면서 매출도 점차 늘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처음엔 만사가 힘들었다. 일도 익숙지 않고 주위에 슈퍼마켓도 여러 군데 있어 대외변에 있는 24시간 편의점이라 늦은 밤 사고가 생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컸다. 깊은 잠을 잘 수 없어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친절과 다양한 상품으로 단골을 만들고 있다는 헤미리마트 이점순 점장

고 한다. 그래도 단골손님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것에 보람과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이젠 안정이 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일에 전념할 수 있어 무엇보다 기쁘다며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점포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학교주변이라 주로 학생과 젊은이들로 한정되어 있어 단골 확보에는 유리했지만 인심을 잃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학생들에게 최대한 친절과 상냥함으로 손님을 맞고, 객

관적으로 부당하다 싶은 보상청구가 들어와도 대부분 손님들의 요구에 맞춰 서비스에 온 힘을 기울였다.

올해 황금 돼지의 해인만큼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발돋움을 하려는 돼지띠인 그녀의 내일은 희망으로 가득하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스스로 능력에 대해 자신감과 수입도 만족스럽다며 여유가 생기면 성당에서 더 많은 봉사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전했다.

창업할 때 점포 투자금액은 일

대보증금 3천만 원과 월 임대료 1백5십만 원, 그리고 헤미리마트 가맹할 때 든 2천7백7십만 원이다.

월평균 순이익은 3백5십만 원으로 퇴근 후에 그녀를 돕는 남편과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협조를 잘 해줘서 힘을 얻는다는 그녀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일하고자 하는 것이 경영 철학”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은 편의점 계약이 끝나면 개인 편의점으로 돌려 본격적인 유통업을 하는 것이다. 어렵게 창업해 힘든 고비를 견디고 편의점 점장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활기차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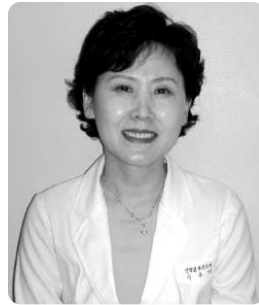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점포를 운영해 나간다는 그녀의 성공 비결은 “배운다는 자세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손님에게 양보하지 않는다면 성공은 보장될 수 없다”라며 세상에는 자신이 조금만 투자를 한다면 길은 열려 있다. 그 길을 위해 올바른 투자를 하길 바란다”고 예비 창업주에게 전했다.

〈배천분 기자〉
chunbunb@hanmail.net

마음까지 치료될 때 큰 보람

일하는 여성 ㉔

부평내과 인공신장실 이종미 간호사



부평1동 부평 내과 인공신장실 이종미(47) 간호사는 1983년 인천 간호전문대학을 졸업해 20여 년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토박이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다가 지금은 영어 강사로 활동 중인 남편과의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불혹의 나이에 서 울대 영어학 석박사를 수료한 남편을 내조하고, 수험생 딸을 뒷바라지하며 사춘기 아이들의 반항을 몸으로 느끼며 바쁜 지난 한 해를 보냈다.

대학교 졸업 후 인천기독병원 산부인과에서 2년 동안 근무하면서 임상 경험과 산실 조산원 교육을 쌓았다.

결혼 후 임신과 자녀 양육 관계로 전업 주부로 지내다가 1993년 3월 성요셉의원 인공신장실(현재 우리의원)에 재취업을 했다. 94년 12월 책임간호사로 승진해 8년 동안 근무하다 현재 부평 내과 인공신장실 수간호사로 7년째 근무하고 있다.

“간호사는 힘들지만 보람된 직업이다. 내가 가진 기술과 지식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어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에 감사한다”는 그녀.

그러나 큰 위기도 몇 번

있었지만 그때마다 슬기롭게 대처해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뇨병환자의 췌어가던 발이 정성스런 치료로 회복되어 갈 때와 과묵한 성격의 환자가 간호사의 사람으로 정서가 순화되고 주위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때 보람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2000년 부평 내과 원장님과 캄보디아로 의료선교를 다녀와서 하나를 주고 열 개를 받아오는 봉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 부평 내과 간호 팀과 매월 효성동과 갈산동에 있는 소망의 집에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

간호학과에 입학한 딸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에 동참할 예정이다. 매년 신장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 그녀는 2001년 싱가포르 국제 신장 학술 대회에

참가해 신장학회가 발전하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세미나였다고 말했다.

함께 근무하는 황나경(29) 간호사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와 추진력으로 위기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지도력도 강하고 후배들을 세심하게 보살피주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라며 이 간호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대한간호정우회 경기 분회장을 맡고 있으며 집안 설거지보다 환자 돌보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이종미 간호사, 요가와 스포츠댄스로 건강을 지키고, 자기개발을 위해 컴퓨터 교육을 받아 젊은 친구들보다 능숙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랑한다.

남들은 간호사가 스트레스를 받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숙제이고 숙제를 마쳤을 때의 성취감이 힘든 줄 모른다는 그녀는 “노인 간호에 관심이 많다”며 “투석 노인을 돌보는 간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꿈”이라고 전했다.

〈배천분 기자〉
chunbunb@hanmail.net

‘엄마표 간식’ 아이 입맛 잡아라

길거리 음식 · 운동부족 소아비만 주원인
브로콜리 · 우엉 · 명태 등 이용 요리 해볼만

국내 초등학생 4명 중 1명꼴로 비만이라는 통계가 있다. 소아비만은 성인이 되어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등 성인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소아비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운동부족’과 ‘길거리 간식’을 지적한다. 특히 햄버거, 떡볶이, 어묵, 튀김, 토스트 등 길거리마다 넘쳐나는 군것질감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들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이들은 방과 후나 학원을 오가면서 길거리로 간식으로 허기를 채운다. 비교적 저렴하고 손쉽게 배고픔을 없애준다는 점에서는 유용한 먹거리다. 하지만 이러한 음식에는 최근에 문제시되고 있는 트랜스지방이나 발색제, 화학조미료 같은 다량의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다. 또 대체적으로 집에서 만든 것보다 더 짜고, 더 달고, 더 자극적이다.

물론 이러한 음식을 한두 번 먹는다는 문제가 아니다. 소아비만은 성인보다 더 심각한 문제다. 하지만 아무의식 없이 지속적으로 먹는다면 그래서 그 속에 녹아있는 첨가물들이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계속 쌓인다면 어떻게?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은 집에서 직접 만든 간식을 챙겨주는 것이다.

갈산동에서 친환경 간식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윤미례(38) 씨에게 간식 만들기에 대한 요령을 들어보았다.

“성장이 아이들은 신진대사와 뇌 발달이 왕성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영양가 있는 간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갈산동에서 간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제철 자연식품을 이용하는 것. 이왕이면 국내 유기농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것이 좋다. 겨울철 제철식품으로는 브로콜리, 시금치, 우엉, 연근, 대

구, 명태, 굴, 오징어, 굴, 사과, 호두, 은행, 유자 등이 있다.

다음은 그녀가 추천하는 제철 식품을 이용한 간식 메뉴들이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손쉽게 해줄 수 있는 메뉴이기도 하다.

▲굴이나 우엉, 연근은 튀김가루나 달걀을 묻혀 튀김으로 먹는다.

▲대구나 명태 같은 흰 살 생선은 포를 떠 전으로 부쳐 먹는다.

▲브로콜리나 시금치는 수프로 만들어 먹는다.

▲설날 때 먹고 남은 떡은 카레나 자장떡볶이로 만들어 먹는다.

▲비타민 E와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잣, 땅콩, 호두 등의 견과류는 고구마나 단호박과 버무려 먹는다.

한편 건강을 생각한다면 기름도 수입품으로 만든 대두유 대신 국내산 현미로 만든 현미유나 올리브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 마가린이나 쇼트닝 등의 트랜스지방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장경선 기자〉

sunny0822@hanmail.net

인천여성문화회관 총동창회

중학생 5명에 장학금

인천여성문화회관 총동창회(인천여문화)는 지난 1월 4일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장학금 수여는 인천시 중학교 3학년 재학생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하며, 지역사회봉사정신이 투철한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 5명에게는 각각 30만원의 장학금이 수여됐다.

한편 인천여문화의 장학금 수여는 지난 1995년 시작, 십여 년 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으며 회원들의 회비와 ‘작은 마음 큰 사랑나누기’ 행사로 마련한 기금으로 이뤄졌다. 지금까지 총 60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

〈장경선 기자〉
sunny0822@hanmail.net

품질인증제 실시로 ‘안심 수돗물’

상수도사업본부, 고객만족도 향상 최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 품질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수돗물 품질인증제’는 희망고객을 대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공급증 해소와 이용불편 최소화를 위한 급수시설진단 및 무료 수질검사를 통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수돗물 A/S제도이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공시설 등 수용가를 직접 방문해 수돗물의 안전과 음용수에 기본이 되는 12개 항목을 선정, 현장에서 직접 정밀기기를 이용해 검사를 실시하거나 현장 측정 불가 항목은 시료채취 후 수질연구소에서 정밀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일반세균, 대장균, 잔류염소 등의 안전성 확인과 pH, 색도, 탁도, 맛, 냄새 등의 심미적

영향에 관련한 것, 그리고 철,

아연 등의 급수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검사 한 후 환경부에서 정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품질 적합 인증마크를 부착한다. 또한 부적합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수용가와 함께 부적합 원인을 파악해 개선 조치 후 정상화가 될 때까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발생원인의 대부분은 노후배관으로 인한 것이 많다. 녹물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러한 경우 초기출수를 배출시킨 후 사용하면 이상 없이 사용 가능하며 심각한 경우에는 배관교체를 권하기도 한다.

온수 사용 시 소독취와 유사한 냄새가 발생하는 것은 보일러나 온수배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이다. 수질연구소 관계자는 “옥내

배관 부식이나 저수조 등 물탱크 청소 불량 시에 탁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탱크는 적어도 6개월에 1회 이상은 청소를 해 주어야한다”며 “또한 가정에서 음용할 수돗물은 반드시 직수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2년간의 시범사업기간인 2004년에 750여 곳, 2005년 1,016곳에 ‘수돗물 품질인증제’를 실시한 후 조사한 설문결과에서 높은 만족도와 수돗물 신뢰회상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올해도 1,000곳에 수돗물 품질인증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희망 고객은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검사비는 무료이다. ※신청방법 :

http://waterworksh.inchoen.kr / 수질연구소 720-2220

〈이민목 기자〉

ilovedongwha@naver.com

어린이집교사가 되기위한
2007학년도 신입생모집
● 국가자격증취득 ●
www.ikcem.org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 본 교육원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탁된 현13년 전통과 3,600여명의 교사를 배출한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시설이며 아래와 같이 신입생모집을 합니다.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1월 1일부터 접수(정원제)선착순
② 접수처 : 본 교육원 교무과 (032)867-5001~3
③ 전형방법 : 무시험 서류전형 및 면접 (주안역 13번 출구 도보3분)
④ 2급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3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이 만 6월이 경과한 자

여성가족부신한 인공신장실 제1호
인천KCEM보육교사교육원

2007년도 최저생계비, 4인가구 1,170,422원

구분	'06년 최저생계비	'07년 최저생계비	인상률
1인 가구	418,309	435,921	4.2%
2인 가구	700,849	734,412	4.8%
3인 가구	939,849	972,866	3.5%
4인 가구	1,170,422	1,205,535	3.0%
5인 가구	1,353,242	1,405,412	3.9%
6인 가구	1,542,382	1,609,630	4.4%

4인가구의 경우 금년도 최저생계비 보다 3%를 인상한 금액이며, 그밖의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수에 따른 지출을 감안한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1인가구는 4.2%, 2인가구는 4.8%를 각각 인상한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509- 6465)

2007년도 제14기 부평여성대학 운영

여성의 잠재된 능력개발 및 사회활동과 연계되는 다양한 교육 실시로 21세기 경쟁력 있는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2007년도 제14기 부평여성대학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관심 있는 구민여러분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07. 3. 12~6. 21
■ 교육장소 : 부평구청
■ 참여대상 : 부평구 거주 여성 및 재직 여성
■ 수강신청 - 신청기간 : 2007. 2. 12 ~ 선착순 마감
- 신청기준 : 1인 1개별과목 신청
- 접수방법 : 인터넷(http://www.icbplll.go.kr)
■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무료, 교재비·재료비 별도부담)

구분	인원	과정명	일정
개별과목	40	키즈파티플레너	매주(화)10:00~12:30
	40	떡볶이인형(공예)	매주(목)10:00~12:00
	40	POP에쁜손글씨(초급)	매주(금)10:00~12:00
	55	독서지도사(중급)	매주(목)10:00~12:30
공동과목	수강생 전원	법률강좌(1)-강사 차명희(가정폭력, 이혼, 가족상담)	3. 26(월) 10:00~12:00
		법률강좌(2)-강사 진영광(임대차, 채권, 채무등)	4. 23(월) 10:00~12:00
특별과목	누구나 참여가능	봉사활동 체험학습	5월 넷째주
		열린노래교실	1월 10일~6월 30일

매주 수요일 10시~12시(구청 7층 대회의실)

※운영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성과 여성정책팀 ☎ 509-6504)

2007년도 주부외국어강좌 운영

21세기 글로벌시대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고, 폭넓은 사회활동을 위한 외국어강좌 교육 실시로 국제적 감각을 갖춘 경쟁력 있는 여성인력양성을 위한 2007년도 주부외국어강좌가 다음과 같이 운영되오니 관심있는 구민여러분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기간 : 2007. 3. 12~11. 30(하계방학: 8. 12~8. 31)
■ 교육장소 : 부평구청
■ 참여대상 : 부평구 거주 여성 및 재직 여성
■ 수강신청 - 신청기간 : 2007. 2. 12~선착순 마감
- 신청기준 : 1인 1개별과목 신청
- 접수방법 : 본인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접수장소 : 6층어학실(2월12일 접수자)
4층 여성과 여성정책팀(2월13일이후 접수자)
■ 과정 및 강의시간 (※수강료 무료, 교재비는 별도부담)

과정명	수강인원	기간	수강시간
중국어	45	매주 월, 수, 금	09:20~10:40
영어	45		11:00~12:20
일본어	45		12:40~14:00

※운영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여성과 여성정책팀 ☎ 509-6504)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 설정·운영

》 목적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고자 함.

》 운영계획

■ 신고기간 : 2006. 12. 26~2007. 1. 31
■ 신고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재등록기관 : 동사무소
- 주민등록 말소자와 관계없이 현 거주지에 재등록
■ 특례조치
- 말소자 재등록 시 과태료 1/2경감
- 말소자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 주민등록증 재발급(5천원),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350원)

민원봉사과 ☎ 509-6321~3) 및 각 동사무소

금연은 건강 저축

애연가 3인의 정해년 각오

새해엔 누구나 뭔가 새로워지려는 소망이 있다. 자신의 건강은 물론, 간접흡연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새해 금연 결심은 가장 흔한 계획이지만 실천하기 또한 어려운 것 중의 하나이다. 정해년(丁亥年) 올해도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금연을 시작하는 조규철, 민경철, 공대원씨의 금연동기와 사연을 들어보았다.

위 세 사람은 금연을 다짐하는 의미로 오는 6월 “부평사람들” 지면을 통해 성공여부를 알려 줄 것을 약속했다.

한편 부평구보건소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금연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활동으로 현재 하루 평균 50여명이 등록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금연클리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보건소(509-8220)로 문의하면 된다.

결혼기념 선물로 끊을 것



공대원(38) 씨

실직이후 아이들과 부인에게 기념일에 선물을 못해 주고 있다는 공대원(38)씨는 올해는 결혼기념 선물로 금연을 결심했다. 또 유치원에서 흡연피해를 교육받은 딸(7)이 담배를 피우는 아빠를 볼 때마다 아빠의 건강이 걱정되어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금연을 시작했다.

승객에 쾌적한 환경 조성



조규철(51) 씨

개인택시를 하고 있는 조규철씨는 어느 날 택시를 탄 고객에게서 담배 냄새의 역겨움을 느끼게 되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고객은 물론 가족들에게 자신의 역겨운 냄새를 주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금연을 결심했다. 금연을 시작하고 보니 담배재와 재떨이가 없어지면서 주위가 깨끗해졌으며 담배 피웠을 때의 지저분함을 후회한다. 조규철씨는 “마음먹었으니 잘 지켜야죠. 쉬는 날에는 담배를 잊기 위해 운동도 겸하고 있습니다.”

간접흡연 피해 생각 결심



민경철(67) 씨

민경철씨는 40여 년간 담배를 피웠다. 자신의 건강은 물론 주변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미안함에서 시작됐다. 간접흡연의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담배를 피울 때마다 장소를 찾아야 하고 주변의 눈치를 보는 것은 흡연의 즐거움보다 더 큰 중압감으로 괴로웠다. 1월 2일부터 시작하여 보조식품에 의지하지 않고 실천하고 있어 구민과의 약속은 잘 이행되리라는 믿음이 있다.

〈김혜숙 기자〉 kimhs424@naver.com

늦깎이 공부에 빠져봐요

남인천중고등학교 배움의 문 활짝

“열정만 있다면 새로운 세상 열려요”

세상 살다보면 못 배운 설움만큼 큰 아픔도 없다.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을 대상으로 남인천중고등학교는 배움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신입생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000년 10월 21일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정식인가를 받아 중학교 기본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공통교과, 전문교과 과정을 교육한다. 현재 중학교 3개 반과 고등학교 4개 반을 운영하고 있다.

근로청소년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3년 과정을 1학년 3학기제로 단축, 각 2년 만에 마칠 수 있는 최초 성인교육의 전당이다. 1학년 3학기제란 여름,

겨울 방학을 없애는 대신 2년 만에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교 수업 외에도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 개인의 문화적, 사회적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백암예술제, 체육대회, 수학여행 등 일반학교와 똑같은 동아리 활동으로 자기계발의 기회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다.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인천전문대학 영양학과에 재학 중인 4회 졸업생 문명남(46)씨는 “배움을 멈춰버렸거나 시작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남인천중고등학교로 오십시오. 배움에 대한 열정

만 가슴에 담아 오시면 됩니다”라고 말한다.

늦깎이 공부의 재미에 푹 빠진 2학년 4반 교실은 쉬는 시간이 없다. 쉬는 시간을 알리는 신호에도 질문이 이어져 선생님은 교실을 나갈 수가 없다. 학생들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섞인 “호호하하”를 연발하며 질문은 계속된다. 선생님이 학생보다 훨씬 어리지만 배움을 향한 학생들의 눈빛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

“시험도 보고 숙제도 있지만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습니다. 살아온 경험이 있어 속속 들어오는 과목도 있지만 영어는 정말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네요” 하며 속삭여워 한다.

“배우지 못한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있어 배운 것을 쉽게 잊어버리는 결정적인 단점을 알고 반박 또 반복해서 지도 해주시는



비록 늦깎이 공부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만은 가득하다.

선생님에게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말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반 친구들 중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도 있고, 정치와 사회에 봉사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공부가 아무리 힘들어도 입학생 전원이 졸업합니다.”

김숙자(53)씨의 학교자랑과 함께 수십 년의 세월을 넘어 학교로 돌아온 이들에게서 남다른 용기와 자신감을 배운다.

중·고교 모두 주간 3학급, 야간 1학급이 운영된다. 원서접수는 매년 10월1일부터 선착순이며, 2월 16일에는 제5회 졸업식을 앞두고 있다. 대학 진학 시 특별전형 혜택과 국가 자격증 필기시험 면제의 특점이 있다.

문의: ☎863-9941 ~ 3/www.namincheon.or.kr

〈김혜숙 기자〉 kimhs424@naver.com

선생님들이 들려주는 화음

현직교사 구성 ‘뮤직아카데미’ 네번째 공연 성황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어요, 각박한 사회에 음악이 사람들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다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어디든지 찾아가려고 합니다”

현직교사들로 구성된 ‘Music Academia’가 12월 22~23일 4번째 공연을 했다. 부평1동 소방서 맞은 편 ‘모차르트 클래식카페’에서 열린 이 음악회는 프로연주자 못지않게 짜임새 있게 진행되었다.

3년 전 인천종합예술회관에서 첫 번째 공연을 시작으로 1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태리 가곡, 오페라 음악, 성가곡 등 폭넓은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청소년과 관중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가고자 교과서에 실린 음악을 중심으로 곡 해석을 보며 즐길 수 있도록 빔프로젝터를 이용하기도 한다.

이 음악회는 경쟁을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여유를 주고 컴퓨터를 제공하기위한 교사들의 제자사랑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출연진은 박영주(피아노, 작곡가), 곡현수(소프라노, 부평교), 김미향(소프라노, 인천제고), 이정실(바리톤/첼로, 효성중)씨와 6명이 출연했고 특별찬조 출연으로 현립컨지립대학교 교수인 김종구(바이올린)씨가 함께 했다.

검은 연주복과 드레스로 예



지난 12월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Music Academia의 공연이 모차르트 카페에서 열렸다.

를 갖춘 교사들의 준비는 감동적인 음악회의 분위기를 몰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진행되었다. 음악회는 시네마천국(피아노 트리오)으로 시작하여 카치니의 아베마리아, 슈만의 두척탄병 등 대중적이고 주옥같은 성악곡과 피아노 트리오로 베토벤 곡을 마지막으로 연주하자 관중들은 앙코르를 외치며 박수가 그치지 않았다.

모차르트 카페를 운영하는 이승연씨도 “40여회 음악회를 했지만 이렇게 앙코르박수가 그치지 않기는 처음”이라며 기뻐했다.

팁장을 말고 있는 곡현수(47)씨는 “음악회를 통해 아이들의 정서를 일깨워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발전하는 교사들의 모습도 보이고 싶었습니다”라고 말했다. ‘Music Academia’ 회원들은 매주 한번 있는 연습을 위해 지금도 개인 레슨을 받기도 하고 석사, 박사코스를 밟는 등 시간과 물질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하다.

이해정(작전여고)씨는 “인천 지역에 클래식음악이 보편화되기를 꿈꾸며 찾아가는 음악회는 계속 펼쳐 나갈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정해년에는 잃어가는 정서와 삶의 윤택함을 위해 클래식음악과 친숙해 보는 것도 좋겠다.

〈정복희 기자〉 music1237@hanmail.net

따뜻한 이웃

한부모가정에 매달 학비 선행

십정동 임병인씨

부평동 185-66에 살고 있는 임병인씨의 미담 사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임씨는 성당에 다니는 지인의 소개로 박모(15·십정동)양을 소개받아 매월 10만원의 학비를 지원하게 되었다. 임씨는 평소 가정 형편이 어려워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거나 나쁜 길로 빠져드는 청소년들이 주위에 많음을 안타깝게 생각 하던 중 어머니, 오빠와 함께 살고 있는 박양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다. 박양의 어머니는 “세 가족이 제 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니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형편이었다”며 “그런데도 열심히 하는 딸이 대견스러웠는데 이렇게 도움까지 받고 보니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어찌가 무겁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임씨 또한 “비록 적은 액수지만 박양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단순히 학비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한다면 학원을 수강하는데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자료제공: 청천2동사무소(☎509-8413)

적십자회비는 이웃사랑 실천

2월 28일까지 모금운동

대한적십자사는 금년에도 1월 20일부터 2월28일까지 40일간 회비모금운동을 한다.

적십자 회비는 국민들이 일년에 한번 내는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큰 희망을 전해줄 수 있다.

모아진 적십자회비는 재해이주민을 구호하고, 홀로 사는 노인과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쌀과 부식, 사랑의 도시락, 김장, 연탄 등을 지원하는데 쓰여진다.

2000년 지로납부제로 바뀐 이후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고와 대북 지원 사업으로 인한 적십자 활동에 따른 불신으로 참여가 저조하다.

그러나 북한 지원에는 국민이 낸 적십자회는 사용되지 않는다.

대한적십자사는 2006년에 정부 위탁에 따라 대북 비료 및 수해물자지원으로 총 3,229억원을 집행하였는데, 이 금액은 전액 정부

의 남북협력기금예산으로 지원되었다.

북한에 물자가 지원될 때 적십자자를 통해서만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로의 역할만을 하는 것이다.

납부권장기준 액은 세대주는 6천원이며 개인사업자는 3만~10만원으로 차등 부과되고 법인은 3만~50만원이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배부 받은 납부용지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인천지사 적십자회비 모금액 21억9천여만 원은 사회봉사활동과 재해 이재민과 저소득층 구호, 청소년적십자활동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었다. 적십자회비는 꼭 필요할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고 있다.

우리사회에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이 된다는 마음으로 부평구민 여러분의 사랑과 실천을 기다린다.

문의: 적십자사 인천지사(☎815-5015~8), 부평구 자치행정과(☎509-6144) / 각 동사무소 〈서명옥 기자〉 smo@icbp.go.kr

2007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 안내

2007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린다. 논농업에 종사하시는 농가께서는 아래내용을 참고하시어 보조금을 매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07. 1. 2 ~ 2. 28일

나. 신청장소: 부평구청 경제과 지역경제팀(☎509-6548)

다. 신청방법

■ 기존 등록자: 2006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농가

① 기 등록증 내용과 변경이 없는 경우
- 쌀소득등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 1부: 구에서 전산출력하여 보내드린 신청서(등록증)를 해당 농업인이 확인·서명후(마을대표 확인 불필요) ⇒ 부평구청 경제과(6층)에 제출

② 기 등록증 내용과 변경(농지 추가)이 있는 경우
- 쌀소득등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와 경작확인서(마을대표 확인필)

■ 신규 등록자: 2006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

① 대상농지: 1998.1.1부터 2000.12.31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

② 대상농가: 상기 대상농지를 1,000㎡이상(0.1ha) 경작하는 농가

★ 제출서류 -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서 1부
※ 구에서 직접 수령 또는 부평구청 홈페이지(www.icbp.go.kr) 공지사항 첨부서식을 출력하여 신청

-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농지별 소재지의 마을대표 확인)
- 경작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정증명, 임대차계약서 등)

경제과 지역경제팀(☎ 509-6548)

‘기능한국인’ 추천 안내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실업계, 고교,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을 졸업하고 사회 각계에서 성공한 기능인을 ‘기능한국인’으로 선정·시상하고자 합니다.

■ 포상부문: “기능한국인”(훈격: 노동부장관 표창)

■ 주 관: 노동부/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시 상 일: 매월 1회/신청기간: 수시 접수

■ 추천대상: 실업계고등학교 또는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을 졸업하고 10년 이상 산업계 근무경력이 있는 명장, 기능전승자, 기능장, 국내·외 기능경대회 입상자, 중소기업체 CEO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

■ 추천 제외대상: 추천심사위원회에서 추천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 추천방법: 실업계 고교,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등 교육훈련기관, 각종 협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에 제출(접수)

■ 추천서류: ① 추천서 양식 ②졸업증명서(실업고교, 직업전문학교, 기능대학 졸업) ③공적내용서 ④개인정보보호동의서 각 1부

※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및 ‘전문기능인력 Pool 시스템’홈페이지(http://pool.hrdkorea.or.kr)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단, 졸업증명서는 제외).

■ 수상자에 대한 혜택 및 활동
○ 노동부장관 표창장 및 기념패(은150톤 상당)수여
○ 선정(수상)시 언론 홍보, 동영상물 제작·배포, 책자발간 등

■ 선정 심사기준: ① 근무경력 ② 명장·기능전승자·기능경대회 입상·국가자격취득 ③업무와 관련된 특허·국제규격 획득 또는 생산성·품질향상·공정개선 실적 ④ 지역사회 봉사활동·사회 교육실적 등 사회기여도 등을 종합평가

■ 접수: 한국산업인력공단인천지역본부 (우:405-817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625-1)

■ 문의: 818-2181~3(사업지원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역본부

2007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공고

평생교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1.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1. 신청지역: 부평구에 주소 등 평생학습실형 공공기관(법인, 단체) ▲ 평생학습관, 복지관, 도서관, 대학 부속 평생교육원 ▲ 평생교육재단 협의회, 단체, 기타 시설 및 교육기관

2. 지원대상: ▲ 사업주최기간: 2007. 3월~12월 ▲ 사업지역: 부평구내에 한함

분 야	주요 프로그램 내용
특별기획 프로그램	▲ 부평구 지역특성을 살린 대표적 사항 중 부평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목받을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
우수 프로그램	▲ 노인용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 저소득층 직업교육, 장애아동 성장지원 프로그램 ▲ 노동자대상인 포항의 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 시설 및 공방별 아동 학습지원 ▲ 고학력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아동, 여성, 노인 등) ▲ 건강관리 가정교육, 아동 및 청소년 성장 프로그램 ▲ 민간단체 및 환경의식 교육 프로그램 ▲ 주민자치리서시 강화 프로그램
지역특화 프로그램	▲ 기타 평생학습을 진흥 프로그램 ▲ 지역학 교육(지역문화해방, 역사탐방) ▲ 외국어인 한국문화이해를 위한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 등

▲ 제외대상: ① 특정지역, 기관,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② 보조금으로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사업, ③ 단체, 기관의 정기회비, 행사비 등 단체 및 기관의 내부사업, ④ 동일한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은 사업, ⑤ 초·중·고교, 박사논문 등 정치 목적을 위한 사업

3. 신청서류: (부평구평생학습센터 및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지원사업신청서 및 지원사업계획서 각 2부 ▲ 법인(단체) 자기소개서 2부 ▲ 단체인 경우 비영리단체등록증 사본 2부, 법인인 경우 법인허가증 사본 2부 ▲ 상시서류 디스켓에 작성하여 별도제출 바람

4. 선정기간 및 접수완료
▲ 선정기간: 2007. 2. 15(목)~2. 15(목)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방문접수 ▲ 접수장소: 부평구청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지원팀(부평4동 879번지 5층) ▲ 선정문의: ☎509-6167

5. 지원내용: ▲ 지원규모: 프로그램 당 최고 5백만원 내 지원 ▲ 지원 프로그램 당 지원금액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1기(연단제) 1프로그램 지원은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운영의 직접적인 경비에만 지원 (강사료, 교재비, 실습비, 홍보비 등)

6. 심사 및 통보
▲ 심사위원: 심사위원회의 별도구성 심사
▲ 선정기준: ▲ 프로그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창의성, 지역사회 파급효과, 수혜대상자와 프로그램 운영수행 능력, 사업비의 타당성(자부담 비율) 등 ▲ 소의계통프로그램 및 직업교육(자격증 취득)프로그램에 가산점 부여 ※ 동일사업으로 행정기관에서 지원(예정)되는 프로그램은 제외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 보조금 지급: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사업실행계획을 첨부하여 지원금 교부신청서 제출

▲ 평가: 사업완료 후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 등 평가
※ 정산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출

8. 기 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및 단체는 보조금을 환수(환수)함.

‘폐필름류’ 이젠 쓰레기가 아닙니다! 필름류 포장재 분리배출

과자·라면봉지 등 폐필름류 포장재 이젠 분리배출 하시면 ‘쓰레기’가 아니고, 귀중한 ‘자원’이며, 곧 ‘돈’입니다.

▶▶ 분리배출일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저녁 10시에 반드시 자기집(건물) 앞에 배출해야 합니다.

▶▶ 분리배출 품목은

재활용분리배출 마크가 표시된 모든 필름류 포장재

● 필름류 포장재: 과자, 라면, 세제류 등 포장봉지

● 1회용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인 검정색이나 기타 유색 1회용비닐봉투 등

※ 단, 1회용비닐봉투는 종전과 같이 무색 및 유색으로 분리하여 필름류와는 별도로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 분리배출방법은

필름류 포장재를 큰 투명 비닐봉투에 일정량을 모아 차곡차곡 넣은 후 입구를 묶어서 배출

※ 분리배출 표시가 없거나 이물질(음식물)이 묻어 있는 포장재(봉지)는 반드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배출

청소과 재활용촉진팀(☎509~6630)

‘손끝 아름다움’ 가득찼던 구청

부평공예인창립전
청사2층 전시실서

지난 12월27일 오후 3시 부평구청 2층 전시실이 웅성거린다. 소박한 사람들이 모여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다.

작막하던 2층 전시실이 어느새 고풍스럽고 우아한 갤러리로 변신을 마쳤다. 손끝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부평의 공예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스텐실, 데코파쥬, 풍선아트 순으로 돌아가며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저마다 주인의 정성으로 자신만만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보아 넘길 수 없는 공예인의 분신 같은 작품 앞에서 사람들은 조용한 감탄사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특히 풍선아트의 예쁜 드레스 앞에서 찬찬히 감상하던 남자 한분이 직접 만져보며 의문을 갖던 모습이 인상 깊다.

그렇듯 예술의 힘은 대단하다. 얼음같이 차가운 마음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작품 앞에서 저절로 선한 미소가 머금어 지는 것은, 작품을 만드는 이의 마음이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옥주 기자〉

okju1997@hanmail.net



버스승강장에 문화도시 부평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시와 그림이 실려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있다.

구, 35곳에 시·시화 게시... 기다리는 시간 지루함 달래

부평구는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목표로 전국최초의 혁신적인 발상을 실행에 옮겼다. 관내 버스정류장 35개소·앞뒤 70면에 시와 시화를 게시 해 문화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변화에 돌입했다. 바람막이 원도우가 시집 한쪽을 펼쳐놓은 양 눈길을 끈다.

그간 기존 버스승강장들은 대개 빗발거리개인 지붕과 기둥, 벤치로 이루어져 상업성광고나 구를 상징하는 인쇄물이 설치되어 있었다. 또한 전세, 상품, 아르바이트 등을 알리는 각종 불법전단지 등이 붙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 일쑤였는데?문학의 향기가 술술 풍기는 정류장 분위기를 한껏 품격을 살려주었다.

이번에 게시한 시는 우리나라 근현대시인 윤동주, 이육사, 한용운 외 8인의 명시와 구정신문인 부평사람들 기자와 부평지역의 굴포문화회 회원 10여명의 시와 산문을 선별했다.

버스를 기다리던 류종호씨는 “평화나 차가 오는 방향만 쳐다보던 사람들이 무료하지 않게 되어 좋군요. 배차 간격이 5~10분 소요 된다고 해도 시 한쪽 버스 기다리면 지루하지 않아 부평구

청의 발상이 참신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버스정류장에 향토 문인들의 시를 게시해 농음으로써 정서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오리라 믿음을 가졌다.

교통행정과 이운형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문화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기본형 버스승강장에 시와 시화 64점을 게시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운형 씨는 “대중교통 시설물이지만 혼탁한 도시의 공기를 대신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필터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강장이 휴게실과 같은 기분 좋은 공간이라면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겠지요. 앞으로 시에서 설치한 승강장에도 건의해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평구는 품위와 격조 있는 문화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타 자치단체와 차별되는 독특한 교통행정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개선에 일조를 했다.

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 (☎ 509-6750) (조은숙 기자) eyagi90@naver.com

신년축시

낙타는 간다



김학균

대정리를 가로질러 간다.
땅으로부터 깊숙히 세어 나오는 소리
아랑곳 없이
마라톤 선수는 한줄기 바람처럼
굴포천 가로수를 굽어 돈다.

그 곳 사람들에게 아직도
무거운 몸 스스로 움직여
뒀어 이르러
주을 알려려는
지코순전이 있었더라

뛰어도 뛰어도 한다리 교각에
헤지지 않고
순명 다 할 때까지 지킨다
터(土)를

썩썩 갈라지는 사랑의
낙타등 같은 사랑을 위해
울어도 울어도 마르지 않는 샘
눈물 샘
어느 곳
어느 사람에게 있을까

수주 평야를 부는 바람을
앞세워 희망봉을 세우고
뒤돌아 서고
뒤돌아 보지 않고 뛰어가는
부평 사람들

낙타를 탄다.

항동지나 심일까지 불어가고 있다.
2007년 사동오달길
땀 흘리며 가고 있다.
가고 오고
타고 내리고
富平의 또 다른 희망봉을 향하여

김학균 시인 (프로필)

- 시인
- 인천문화상 수상
- '함세덕 회곡연구소' 위원

대정리, 수주 : 옛 부평의 별칭
한다리 : 부평평야 가운데 있던 무지개 다리
행동 : 일산동쪽 마을 이름
심일 : 부평에서 개양쪽의 마을 이름

동호회 탐방 부평청소년오케스트라

놀이처럼 재밌게 클래식과 만난다

단원 70여명 매주 토요일 한호음
음악 무대 올라 연주자의 꿈키워

대중음악에 익숙한 청소년들이어서 클래식은 어렵고 골치 아픈 것일 거라고 지레 짐작 단원하면 혼날 듯싶다. 2004년 효정청소년오케스트라로 창단을 시작했으나 갈수록 단원수가 팽창해 “부평 청소년오케스트라”로 이름을 바꿨다. 그동안 창단연주회, 청소년음악회, 신년음악회 등을 개최하며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음악 활동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

초등 고학년부터 중·고등학교 35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오케스트라와 초등저학년 35명으로 구성된 주니어오케스트라 총 70여명의 단원들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2시 30분, 4시~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부평공원 옆 연습실에서 한 시간 반씩 연습을 한다. 또한, 이날은 1년 이상 악기를 다룬 학생에 한해 수시 오디션을 본다.

“청소년기의 다양한 경험과 교육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을지라도 궁극

적으로 청소년의 미래 기반을 다지게 해줍니다.” 2007년부터 오케스트라를 맡게 된 이정우 신임단장의 말이다. 그는 부평3동 ‘시카고 치과’ 의사이면서 첼리스트이다.

청소년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 육성하는 게 지도자의 몫이고 예술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싶다고. 또 현재 현악 중심의 음악에 관현악을 결부시켜 폭넓은 음악세계를 경험케 하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양적인 팽창 못지않게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임혁 지도교사와 강병준 지휘자는 창단 때부터 이끌어 왔고 청소년들이 클래식을 놀이처럼 재밌게 만났으면 하는 게 그들의 지표이다.

그는 지휘봉을 흔들 때 친근한 형과 같은 표정으로 허공에 선율을 그린다.

바이올린이 음색을 선도하자 비올라, 첼로 등 오케스트라의 다른 악기들도 정중하게 따라 불었다.

창단멤버이자 연주자의 꿈을 갖고 있는 김경진(고양예고1)군은 선배답게 “악기도 마음과 일심동체가 된 생명체라고 봅니다.



2월 연주회를 앞두고 청소년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습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사람을 담아 연주하면 한없이 아름답고요. 편지 많은 맘으로 연주하면 소리가 찌그러져 들립니다. 솔리스트로 있을 때는 저의 길이가 어디까지인지 몰랐는데 합주를 하면 문헌 하모니 속에서 제 소리를 찾게 돼요.” 현악기 중 리더 격인 바이올린을 맡고 있다.

2월 말에 부평청소년오케스트라는 제 4회 정기연주회인 “신년음악회”를 연다. 연주곡은 비발디 사계 중 겨울, 요한스트라우스 박쥐교향, 파헬렐의 캐논, 비올라 협연을 비롯해 주니어오케스트라가 찬조한다. 청소년 예술 문화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문의 : 011-790-7445)

〈조은숙 기자〉 eyagi90@naver.com

문학의 길을 찾아서

시향문학

시에서 흐르는 향기 맡아보세요

어느 날 시인은 ‘선생님’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2002년 박선애(55)씨는 교회문화센터에서 20여 명의 제자들과 첫 상봉을 한다. 칠순을 바라보는 어르신부터 서른 초반의 새내기까지 그녀의 제자로 자리했다.

“시를 왜 쓰십니까?” 선생의 첫 질문은 지금도 제자들에게 동의를 던지고 있다. 이제 2권의 시집을 낸 초보 시인들이지만 ‘시를 왜 쓰는 걸까?’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박선애 강사.

시향문학지는 그리 오래된 문예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등단한 시인들이 많은 일반적인 문학지도 아니다. 그럼에도 부평에선 ‘시향’ 하면 시를 쓴다는 사람들은 알만한 문예지로 자리매김했다.

“지역에서 시작한 문학지니



시향문학회 회원들

만남 지역을 벗어나고 싶지는 않았습다. 꾸준한 작품 발표회와 시 낭송회로 주민들과 먼저 친해지는 연습을 한 덕분이지” 회장 김금희(70.부평1동)씨는 4년 전 예순여섯에 글을 쓰겠다고 연필 하나 들고 문화센터를 찾았다. ‘무식 이 용감이다’ 라고 말하기를 주저 않는 그녀는 올해 칠순의 나이에 인천에서 열리는 많은 백일장 장원을 휩쓸고 있다. 그뿐이라 그녀와 동갑인 김기돈(70.부평4동)씨는

지난 가을 등단을 마치고 기성시인의 대열에 합류하며 노익장을 과시했다. 하반신마비 장애 3급의 그에게 누군가 ‘희망이 무엇이니’ 묻는다면 ‘시인이 되고 싶다’라는 답을 주지 없이 한다.

이렇듯 회원들은 품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징검다리 같은 추억을 안고 시를 쓰는 사람들이다. 칠순의 멋쟁이 할머니 시인도 있고 주춧돌 역할을 하는 중견시인들도 한 자리 하는 곳. 박 선생은 다른 문학 단체에 없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곳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앞만 보고 달리던 삶에서 가끔은 새순이 돋는 그리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시의 향기를 만들고 있다.

〈이혜선 기자〉
2hyesun@hanmail.net

부평문화사랑방

2007년 2월 공연안내

어린이 뮤지컬

‘서울에 온 딸쥐’



- 일 시 : 2007년 2월 7일(수)~9일(금) 오전 10:30 / 오후 16:30
- 관람방법 : 선착순 전화예매
- 관 람 료 : 일반 3,000원 / 회원 30% 2,100원 / 단체 20% 2,400원
- 공연장소 : 부평문화사랑방
- 예매 및 문의 : 505-5995

부평문화사랑방 (☎ 505-5995)



2014년 아시안게임유치기원

‘2007 인천광역시장컵 한·중 프로농구 올스타전’ 개최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기원하고, 중국에서 인천광역시의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2007 인천광역시장컵 한·중 프로농구 올스타전』이 우리시와 중국에서 교환경기 방식으로 개최됩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람 있으시기 바라며, 한국 국가대표급의 프로농구 올스타와 함께 활기찬 새해를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 대회일시/장소

- 당일식전행사 : 오후 5시, 유명가수 초청 공연
- 인천경기 : 2007. 1. 30 (화) 18:00 / 인천삼산월드체육관
- 중국경기 : 2007. 1. 28 (월) 16:00 / 장소성 무석시
- 주최·주관/후원 : 한국프로농구연맹, 중국농구협회/인천광역시
- 경기 공중파 중계
- 중국경기 : 한국 케이블TV(X-Sports) / 중국 중앙방송(CCTV)
- 인천경기 : KBS 2 TV / 중국 중앙방송(CCTV)

■ 경기 관람료

- VIP 15,000원 / 일반석 8,000원 / 어린이 2,000원(일반석)

■ 입장권 예매 및 판매

- 예 매 : 인터파크 (1544-1555)
- 당일판매 : 인천삼산월드체육관(505-4500)
- 기타사항 문의처 : 한국프로농구연맹(02-210-3000)

설날맞이 “사랑의 쌀” 을 나누시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구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부평 한사랑 운동’에 참여하여 따뜻한 세상을 만듭시다.



♥ 한사랑운동이란

57만 부평구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하여 이웃 사랑을 자발적으로 실천하게 하는 운동으로, 『한사랑』은 ‘크고 하나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 모집기간 : 2007년 1월 15일 ~ 2007년 2월 16일

♣ 문 의 : 구청 주민생활지원과 복지기획팀(☎ 509-6450)

또는 각 동사무소



부평 한사랑 운동